

musenet.gcfi.kr

**GYEONGGI
PROVINCE MUSEUM
GUIDE BOOK**

**경기도박물관
가이드북**

 경기도박물관



musenet.ggcf.kr

**GYEONGGI
PROVINCE MUSEUM**
GUIDE BOOK

**경기도박물관
가이드북**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경기도박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GYEONGGI PROVINCE MUSEUM
GUIDE BOOK

경기도박물관
가이드북

발간사

경기도박물관은 1996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상설 전시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전시·교육하는 박물관이기에 31개 시·군, 1,400만 명에 가까운 경기도민 모두의 역사를 담아야 하며,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비전에 발과 눈을 맞추어야 하는 박물관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수많은 문종과 개인이 유물을 기증해주셔서 경기도박물관은 현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 227점과 경기도지정문화재 70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에 토기, 도자기, 전적, 고문서, 서화, 초상화, 출토복식, 목가구, 민속자료 등 총 5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기도민이 기증·기탁해주신 경기도민의 보물들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은 소장품에 담긴 사연과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하나씩 기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해설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품마다 경기인의 정신과 전통이 아로새겨져 있기에 그 뜻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난 25년간 박물관 직원들이 한시도 쉬지 않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상설 전시유물 3천여 점은 선사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요점만 가려내 간편 해설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을 찾는 분들이 전시품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음미하시길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경기도박물관장
김기섭

목차

I. 경기도박물관	08
1. 경기도박물관 소개	10
2. 경기도박물관 상설전시	12
II. 고려·조선실	18
국가 근본의 땅, 경기	20
1. 천하의 중심 고려, 고려의 중심 경기	21
고려의 건국과 통일	
'경기京畿'의 등장	
'코리아Korea'의 시작	
2. 새로운이 시작된 곳	28
고려의 문화	
천하제일, 고려청자	
혁신, 고려백자	
세계 최고의 인쇄문화: 금속활자 제작과 인쇄	
3. 고려인高麗인의 삶	42
민심을 좌우한 신앙, 불교	
일상생활과 가족	
4. 또 다른 출발	50
새나라 조선朝鮮	
5. 경기, 나라의 근본	54
조선의 경기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와 경기감영京畿監營	

6. 경기를 지키다	62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새로운 수도방위체제, 유수부留守府	
7. 개혁의 중심, 경기	74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과 대동법大同法	
8. 조선의 문화를 이끌다	78
실학의 탄생지	
사대부의 그림과 글씨	
9. 예술로 꽃피우다	86
복을 가져다주는 그림	
천진난만 분청사기粉靑沙器	
왕실백자의 고향, 광주分院	
10. 경기도에 모이다	104
사통팔달의 땅	
팔도의 물산 집합소	
· 경기 목가구	
11. 경기인을 만나다	120
경기인京畿人의 초상肖像	
예를 다하다: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出土服飾	
· 흥배의 시작과 변화	
· 눈물로 삼전도비를 쓴 충신,	
이경석李景奭의 궤장几杖	

III. 선사·고대실	134
1. 경기 땅에 사람이 등장하다	136
인류의 출현과 도구 사용: 구석기시대	
2. 선사시대의 생활	142
농경과 정착 생활: 신석기시대	
권력과 계급: 청동기시대	
선사인의 발명품, 토기	
3. 권력의 등장, 복잡해진 사회	152
새로운 역사의 시작: 철기시대	
4. 마한을 넘어 백제를 세우다	156
마한馬韓과 백제百濟	
전쟁과 교류	
고구려의 한강 진출	
5. 통일 국가, 신라	166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삼국통일	
신라의 지방지배, 9주州5소경小京	
신라 말기의 혼란과 후삼국後三國	

IV. 기증실	172
모두의 보물이 되다	174
V. 실감영상실	178
경기사대부 잔치로의 초대	180

I

경기도박물관



I. 경기도박물관

- 1. 경기도박물관 소개 10
- 2. 경기도박물관 상설전시 12

I.

경기도 박물관

1. 경기도박물관 소개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00여만 명이 사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전시·교육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1996년에 개관하였으며, 2020년에 전시실을 전면 재구성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개관 이래로 경기도박물관은 전시와 교육,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경기도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京畿’는 원래 중국 당나라 때의 행정 체계를 고려시대에 도입하여 개경 주변에 적용한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11세기 무렵부터 쓰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왕조는 1390년에 경기도를 내륙의 경기좌도京畿左道와 해안의 경기우도京畿右道로 나누고 수도권 귀족관료들의 녹봉 근거지로 삼았다. 조선왕조는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전국을 8도 도로 나누었는데, 세종 때 지금의 경기도 범위와 거의 같은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 1910년에는 지금의 서울인 경성부(한성부)가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1946년에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1954년에 휴전선 북쪽에 있는 개성시·개풍군·장단군·용진군·연백군 등지를 경기도에서 제외하여 경기도는 2시 19군 8읍을 관할하였다. 그리고 1967년에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였고, 1981년에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현재 1,300여만 명이 모여 사는 경기도에는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유구한 역사 유적이 곳곳에 오롯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이 경기도박물관에 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민과 세계시민이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며 거시적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2. 경기도박물관 상설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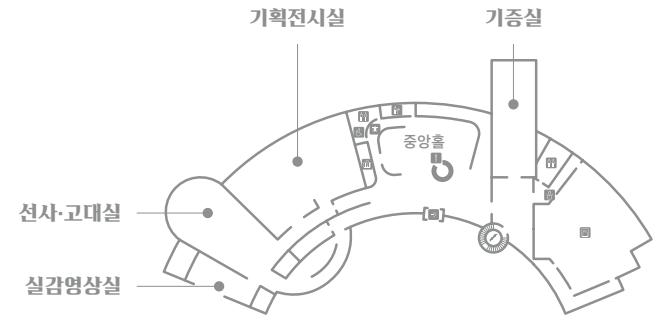
경기도박물관의 상설전시 공간은 실내와 야외로 나뉘어 있다. 실내 로비에서 바로 이어지는 2층의 고려·조선실은 ‘국가 근본의 땅’이었던 고려·조선시대 경기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조명한다. 1층의 선사·고대실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이르는 선사와 고대의 경기 역사를 보여준다. 1층 기증실에는 여러 문중, 또는 개인에게서 기증 받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선사시대의 고인돌,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집터와 무덤, 고려시대의 부도, 조선시대의 문인석 등 20여 점의 전시물이 있다. 이 밖에 실내 1층에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을 개최하는 기획전시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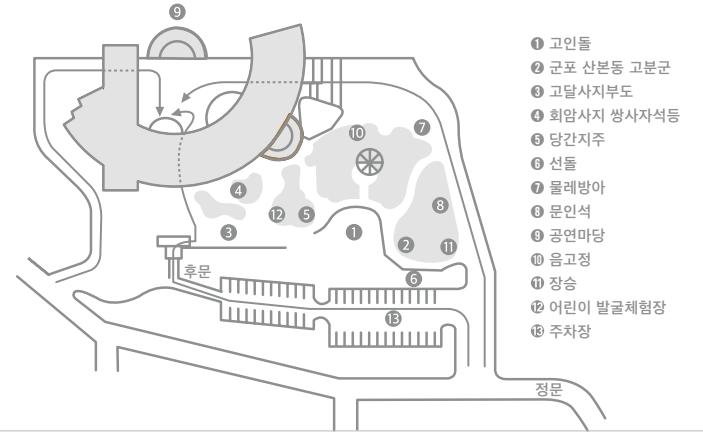
2F



1F



야외전시장



1F

선사·고대실
기증실
기획전시실



1F

선사·고대실



기증실



기획전시실



II

고려·조선실



II. 고려·조선실

국가 근본의 땅, 경기 20

1. 천하의 중심 고려, 고려의 중심 경기 21

고려의 건국과 통일
‘경기京機’의 등장
‘코리아Korea’의 시작

2. 새로움이 시작된 곳 28

고려의 문화
친하제일, 고려청자
혁신, 고려백자
세계 최고의 인쇄문화: 금속활자 제작과 인쇄

3. 고려인高麗人の 삶 42

민심을 좌우한 신앙, 불교
일상생활과 가족

4. 또 다른 출발 50

새나라 조선朝鮮

5. 경기, 나라의 근본 54

조선의 경기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와 경기감영京畿監營

6. 경기를 지키다 62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새로운 수도방위체제, 유수부留守府

7. 개혁의 중심, 경기 74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과 대동법大同法

8. 조선의 문화를 이끈다 78

실학의 탄생지
사대부의 그림과 글씨

9. 예술로 꽃피우다 86

복을 가져다주는 그림
친진난만 분청사기粉靑沙器
왕실백자의 고향, 광주分院

10. 경기에 모이다 104

사동팔달의 땅
팔도의 물산 집합소
· 경기 목가구

11. 경기인을 만나다 120

경기인京畿人の 초상肖像
예를 다하다: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出土服飾
· 흥배의 시작과 변화
· 눈물로 삼전도비를 쓴 충신, 이경석李景奭의 궤장几杖

II. 고려·조선실

고려·조선실

국가 근본의 땅 國家根本之地, 경기

‘국가 근본의 땅’은 조선의 국왕 중종中宗이 1540년 12월 경기관찰사를 임명하며 경기를 가리켜 표현한 말로서, 나무는 뿌리가 영양분을 구해서 잎과 열매에 전달하고 물은 샘에서 솟아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데, 나라의 도읍(서울)이 나무와 물이라면 경기는 뿌리와 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경기지역에는 사방의 물산이 모인 저잣거리가 발달하고, 기름진 들녘에 노동요가 흥겹게 울려 퍼졌으며, 도시마다 집마다 글 읽는 소리가 가득하였다. 경기는 문명의 공간이자 태평성대의 왕업을 이룰 터전이었다.

고려~조선시대 천년에 걸쳐 형성된 경기문화는 지역의 고유문화와 외국 문물이 어우러진 것이기에 개방적이고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다른 어느 것보다 민생民生을 우선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다. 천년의 경기문화는 한국 역사 문화의 원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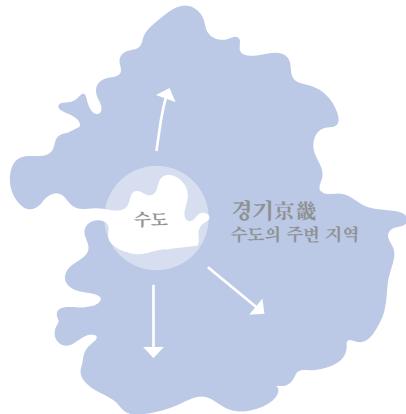


그림 1
경기의 의미

1. 천하의 중심 고려, 고려의 중심 경기

10-12세기에 동아시아의 크고 작은 왕조들은 충돌 하거나 교류·협력하면서 여러 갈래로 관계를 맺었다. 고려高麗·송宋·거란契丹(요遼)·서하西夏·여진女眞(금金) 등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권을 각각 형성하였고, 황제 제도를 운용하기도 했다. 고려가 주관한 축제인 팔관회八關會에는 여진과 탐라耽羅의 사절들이 참석하여 고려 임금에게 예를 갖추고 선물을 바쳤으며, 고려 임금은 답례로 그들에게 관직과 하사품을 주었다. 송·거란·일본의 상인들도 교역을 위해 참가하였다.

‘경기’는 원래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을 뜻하였으나 점차 수도를 아우르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경기는 자연스럽게 고려의 중앙에 자리하게 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제도는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곤 하였다.

● ○ 평화 관계
↔ 경쟁·대립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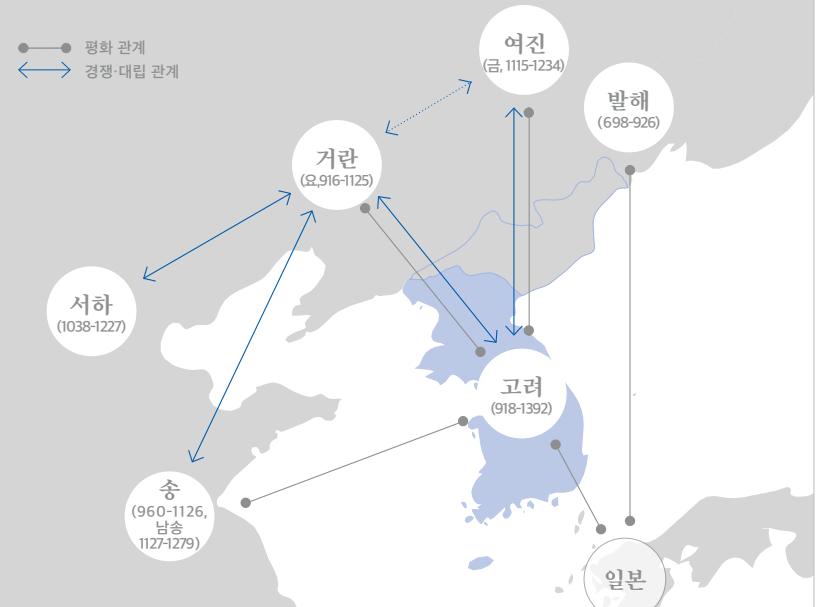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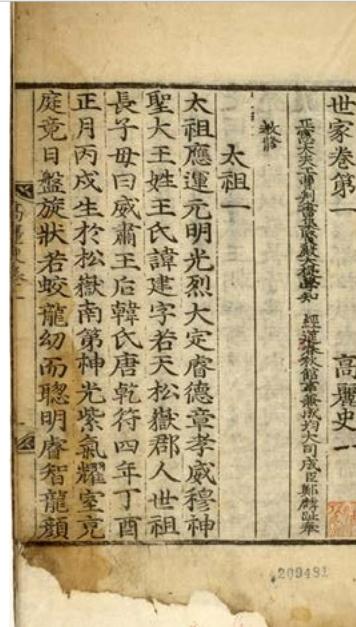


그림 2
고려 전기의 동아시아

고려의 건국과 통일

900년경 한반도의 북쪽에는 발해渤海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남쪽에서는 후삼국인 신라新羅, 후백제後百濟, 태봉泰封(후고구려)이 세력을 다두고 있었다. 918년, 태봉의 신하들은 민심을 잃은 왕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王建을 새 왕으로 추대하였다.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의 후기 국호인 '고려高麗'로 바꾸며 새로운 출발을 만방에 알렸다.

송약(개성) 출신인 왕건은 민심을 수습하는 정책을 펴며 지방 세력인 호족과 협력함으로써 후삼국 통일의 토대를 마련했다. 신라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후백제와는 세력 대결을 벌였다. 결국 후백제의 내부 분열과 신라의 항복으로 936년에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뿐 아니라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여 새롭게 확장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001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高麗史

조선 1451년
김종서, 정인지 등
27.5×18.4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은 태조 때부터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 1451년(문종 1)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국왕의 정치 관련 기록인 세가世家, 신하들의 전기인 열전列傳, 천문·지리·형법을 다룬 지志, 연표 등으로 이루어진 기전체紀傳體 역사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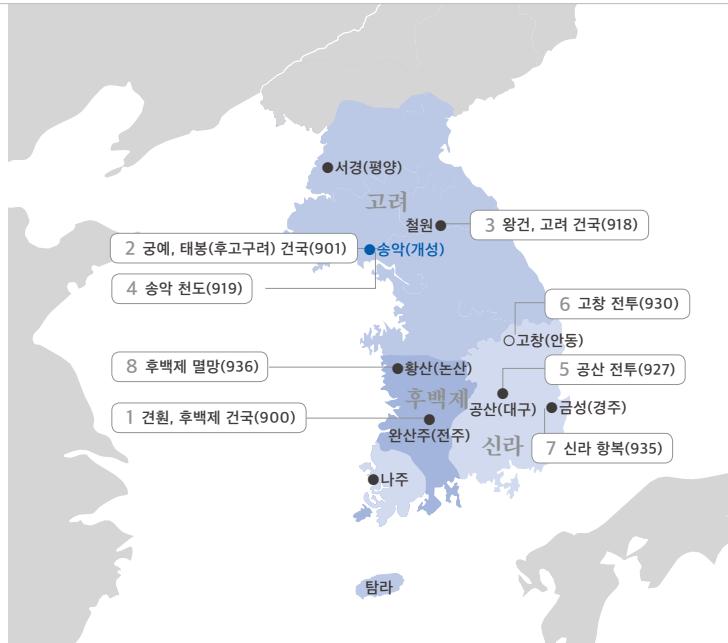


그림 3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
과정



002
고려의 지방지도
五道兩界圖

조선
95.5×49.5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지도인 『5도양계도』를 참고하여 조선시대에 다시 제작한 지도이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하였는데, '경기'가 포함된 왕경개성부를 포함하여 전국을 크게 '5도(양광도·경상도·전라도·교주도·서해도)'와 '양계(동계와 북계)'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었다.

‘경기京畿’의 등장

경기라는 이름은 원래 중국 당나라 때 처음 사용한 것이다. 당나라가 수도 주변 지역을 경현京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한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고려왕조가 본떠서 사용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왕이 사는 개성의 개성현開城縣이 주변의 3개 고을을 관할하고 인근 장단현長湍縣이 주변 7개 고을을 관할하면서 경기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경기 12개 고을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일종의 특별구역으로서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었다. 백성을 위한 정치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곳이었으며, 나라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당시 고려왕조는 전국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북쪽의 국경지대에는 동계東界와 북계北界를 두어 양계兩界라고 부르고, 수도인 개경開京(개성)과 그 주변은 경기京畿라고 불렀으며, 나머지 지역은 5도道로 나누고 그 아래에 목牧, 군郡, 현縣 등을 두었다.

1392년에 개창한 조선왕조는 2년 뒤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전국을 8도로 나누었는데, 15세기 중엽 세종 때 지금의 경기도 영역과



그림 4
고려의
5도 양계

거의 같은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 1910년에는 지금의 서울인 경성부(한성부)가 경기도에 편입되었으며, 1946년에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경기도청은 줄곧 서울에 있다가 1967년에 수원시로 이전하였다. 1981년에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

‘코리아Korea’의 시작

고려는 태조 왕건이 즉위한 918년부터 공양왕이 신하인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준 1392년까지 5백 년 가까이 지속된 왕조로서,

흔히 무신정변이 일어난 1170년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전기에 고려왕조는 중국의 송을 비롯한 거란, 여진, 일본, 오키나와琉球, 베트남, 그리고 아라비아와도 교역하였다. 후기에는 세계무역의 중심이던 원(몽골)과의 교류를 통해 바닷길과 땅길로 다양한 문화를 주고받고 많은 물건을 교역했다. 예성강 어귀에 있는 벽란도는 세계와 연결되는 국제항구였고, 개경은 국제도시였다. 한국을 일컫는 영어 이름 ‘코리아Korea’도 고려라는 나라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림 5
고려 전기 주변
나라와의 교류



003
화엄경 주석본 권제1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一

고려 12세기
16.5×30.3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당나라 징관의 연구서를 송나라 승려 정원이 풀이한 책이다. 송나라의 상인을 통해 고려로 전해졌고, 조선시대에는 다시 일본으로 보내졌다.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는 물론 일본까지 연결되는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를 잘 보여 준다.



005
‘호주’를 새긴 청동 거울
‘湖州’銘銅鏡

중국 송
12.0

‘호주의봉교석가 진정일색청동경 湖州儀鳳橋石家 眞正一色靑銅鏡’이라는 글자가 뒷면에 새겨진 청동 거울이다. 중국 남송 때 ‘호주’ 지역 석씨 가문의 공방에서 만들어져 고려로 수입된 것이다.



004
‘황비창천’을 새긴 청동 거울
‘煌丕昌天’銘銅鏡

고려
17.2

‘황비창천(밝게 빛나는 하늘)’이라는 글자를 뒷면 위쪽에 새긴 청동 거울이다. 거울 뒷면에는 넘실대는 물결 위로 항해하는 배와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006
안향과 정몽주의 초상
安珦鄭夢周肖像

조선
29.5×19.7

『역대도상』에는 중국의 유명한 인물과 고려, 조선 초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안향(1243-1306)은 원나라에서 성리학(주자학)을 들어오고 보급하는데 앞장선 고려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다. 정몽주(1337-1392)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이자 뛰어난 성리학자로 이색李穡은 정몽주를 높이 여겨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시조’라 하였다.

2. 새로움이 시작된 곳

고려의 문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경기는 서해의 발달한 해상교통을 통해 세계와 활발히 교류한 곳이었다. 경기에는 새로운 문화와 풍습, 문물과 기술이 다른 곳보다 먼저 전해졌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썼다.

고려의 수도인 개성은 예성강을 끼고 있는 도시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碧瀾渡는 세계와 연결된 국제항구로서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송나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고려는 송의 불교·유교 경전, 의술과 약재, 도자기, 제례 음악 등 발달한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인삼, 나전칠기, 화문석, 먹, 종이高麗紙, 삼베, 모시 등을 송으로 수출했다.

고려 사람들은 중국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배운 뒤 독자적인 형식의 청자와 백자를 만들어냈다. 송과 거란의 불교 대장경大藏經을 수입한 뒤 국내외 경전과 비교하며 고려대장경을 제작하였고,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며 최고 수준의 인쇄문화를 꽃피웠다.

천하제일, 고려청자

10세기경 고려는 중국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청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은 경기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다. 지금의 황해도 배천 원산리, 경기도 고양 원흥동, 용인 서리, 시흥 방산동 등에 위치한 벽돌가마에서 당시 유행하던 차硯와 관련한 그릇을 많이 생산했다. 이후 11세기 무렵 거란의 침입이 잦아지자, 청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청자 제작의 중심지를 전라도 강진과 부안 쪽으로 옮겼다.

12세기에 제작된 고려의 비색 청자는 중국에 뒤지지 않는 ‘천하제일’이라는 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기로 인정받았다. 고려 사람들은 송나라 청자의 비색秘色과 구분해 자신들이 만든 청자의 아름다운 빛깔을 비색翡色이라 불렀다. 13세기에는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흰색 흙과 붉은색 흙을 채워 넣는 상감기법이 크게 발달했다.



1.바탕흙을 물에 풀어서
고운 흙만 걸러내기



2.바탕흙에
물을 섞어 반죽하기



3.물레를 이용하여
그릇 모양 만들기



4.무늬 만들기



5.그늘에서 잘 말린 후
초벌구이



6.유약 바르기



7.마침구이
(더 높은 온도에서 굽기)

그림 6
상감청자
제작 과정



007
청자 상감 꽃과 새 무늬 의자
靑磁象嵌花鳥柳文墩

고려 13세기
높이 41.5 | 지름 33.5

아랫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간 원통형의 몸통에 여러 가지 문양을 투각, 상감, 양각, 음각 등의 수법으로 장식한 청자 의자이다.

의자 뒷면에는 한 쌍의 봉황을 음각했고, 몸통 중앙에는 마름꽃 모양의 창을 배치하여 공작, 모란, 매화, 대나무, 학, 버드나무가 있는 물가 풍경의 모습을 상감기법으로 새겨 넣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고려 문화를 보여주는 명작이다.



009
청자 찻그릇
靑磁碗

고려 10세기
높이 5.9 | 입지름 16.1

통일신라 말에 당나라로부터 차가 전해지고 선종禪宗이 유행하면서 참선 수행 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찻그릇은 도자기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고려 초에 가장 많이 제작되었다.



008
청자 역상감 모란 당초 무늬 호
靑磁逆象嵌牡丹唐草文壺

고려 13세기
높이 28.8

무늬의 바깥 면을 파낸 후 백토를 넣어 무늬를 표현하는 역상감 기법이 돋보이는 호이다. 주문양은 모란과 당초무늬이며, 형태의 당당함은 13세기 청자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010
청자 양각 대나무무늬 찻그릇
靑磁陽刻竹節文碗

고려 12세기
높이 6.0 | 입지름 11.2

얇은 찻그릇으로 바깥면은 대나무를 뺨뺨이 엮은 모양이다. 입술은 둥글고 굽은 낮고 단정하다. 유약을 두텁게 발라 맑고 푸른 비색을 띤다.



011
청자 철화 풀무늬 호
靑磁鐵畫草文有蓋壺

고려 11세기
높이 27.6

지방 가마에서 만들어진 청자로 전체적으로
녹갈색 유약을 바른 항아리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 항아리에 철화로 풀 무늬를
그려 넣고 나비모양으로 만든 장식을 양옆으로
붙여놓은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013
청자 상감 국화무늬 수반
靑磁象嵌菊花文水盤

고려 12세기
입지름 30.5

입지름이 넓고 높이가 낮으며, 입술은 동그랗게
마무리한 큰 반이다. 굽 없이 바닥은 편평하며,
안쪽에는 국화와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012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찻그릇
靑磁象嵌雲鶴文碗

고려 13세기
높이 6.9 | 입지름 18.5

안쪽에는 백상감된 국화잎이 배치되었고 여백
에 구름과 학무늬를 배필었다. 바깥쪽에는 당초
무늬와 국화무늬, 연잎무늬로 장식하였다.



014
청자 상감 국화무늬 베개
靑磁象嵌菊花文枕

고려 13세기 전반
11.7×9.8×24.4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휘어져 들어간 멋스
러운 베개이다. 흰 국화꽃과 검은 잎사귀 줄기
가 대조를 이루며, 각 면마다 배치되어 있다.
문양과 색깔, 베개의 크기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으로, 베개를 세워서 한쪽 면을 바닥으로
삼아 구웠다.



015
청자 참외 모양 주전자
靑磁瓜形注子

고려 12세기
높이 19.1

몸체를 8등분하여 사실감 있게 표현한 참외 모양 주전자이다. 덩굴처럼 곡선을 이룬 주전자부리와 손잡이, 참외꼭지 모양의 뚜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질은 비색 청자유를 두텁게 바르고 구웠다. 전남 강진 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016
청자 음각 꽃무늬 잔과 잔받침
靑磁陰刻菊花折枝花形盞 盞托

고려 12세기
높이 7.8

꽃을 형상화한 잔과 잔받침이다. 잔받침은 편평한 바닥에 음각으로 꽃잎을 새기고, 굽은 꽃잎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잔이 놓이는 자리는 연꽃무늬를 새겨 높였으며, 그 중앙에는 국화꽃을 양각하였다.



017
청자 상감 국화무늬 표주박 모양 주전자
靑磁象嵌菊花文瓢形注子

고려 13세기
높이 34.8

긴 부리 손잡이를 갖춘 볼륨감 있는 주전자이다. 전체를 여덟 구획으로 나누고 국화무늬 도장으로 뽀뽀하게 상감하였다. 바닥과 닿는 부분에 연꽃무늬를 돌려 멋을 더하였다.

혁신, 고려백자

고려시대에는 청자와 함께 백자도 제작되어 쓰이기 시작했다.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청자 제작 기술과 함께 중국에서 전해졌다. 백자도 청자처럼 고풍토로 만들지만, 청자와 달리 철분 함량이 거의 없는 흙을 사용하며, 가마에서 굽는 온도는 백자가 더 높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에 백자를 청자와 같은 가마에서 구웠다가 차츰 용인 서리 유적이거나 여주 중앙리 유적에서처럼 백자를 주로 생산하는 가마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한다. 경기도는 양질의 고풍토 산지와 풍족한 자원, 그리고 선진기술을 받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백자 제작의 초석을 이룬 곳이다.

특히 여주 중앙리 백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 조각들은 고려백자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다. 이곳에서는 찻그릇, 접시, 잔 등 다양한 기종의 자기와 제작에 필요한 여러 도구가 출토되었다. 고려 전기에 백자는 주로 사찰에서 사용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이후 12세기가 되면 백자 생산은 매우 미미해지고 중국에서 수입한 백자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019
백자 향완
白磁香碗

고려 11세기
높이 18.0 | 입지름 8.8

향로의 일종인 향완으로 뚜껑이 없다. 청동 향완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입술은 바깥 쪽으로 벌어져 있고 높은 받침대가 수직으로 내려온다. 굽의 형태는 광구병의 입술과 유사하다.



018
백자 찻그릇
白磁碗

고려 10세기
높이 5.6 | 입지름 15.2
여주 중앙리 고려백자요지

몸체는 삿갓처럼 벌어지고, 굽은 해무리처럼 동그란 형태로 깎은 해무리굽 찻그릇이다. 굽의 접지면에는 백색 내화토를 네 곳 정도 받쳐 구웠다.



020
백자 꽃 모양 접시
白磁花形 匙

고려 11세기
높이 4.0 | 입지름 10.4

꽃 모양을 하고 있는 백자접시로 경기도 초기 백자가마터에서 제작되는 형태이다. 옆면을 세로로 길게 눌러서 생긴 골로 꽃 모양을 표현하였다.



021
백자 향합
白磁香盒

고려 12세기
8.2×12.0

향을 보관하던 뚜껑이 있는 합이다. 아래 그릇은 틀로 찍어 만들었다. 청자 합에 비해 약간 크고 높은 편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023
토제 갑발
土製匣鉢

고려 10세기
높이 7.8 | 지름 21.1
여주 중앙리 고려백자요지

갑발은 그릇을 구울 때 열을 고르게 전달하고 가마 벽과 천장에서 떨어지는 티가 그릇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덮개를 말한다. 원통형으로 위쪽 중앙이 주저앉아 있고, 찻그릇이나 접시 등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도자기를 구울 때 받침으로 사용되었던 도지비도 출토되었다.



022
백자 철화 풀무늬 매병
白磁鐵華草文梅瓶

고려 12세기
높이 27.5

몸체에 풀무늬가 철화로 시문되어 있다. 풀은 잎사귀가 위로 올라간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024
갓모
軸受

고려 10세기
11.2
여주 중앙리 고려백자요지

물레의 발판과 축 사이에 끼우는 원형고리 모양의 부품이다. 유약은 상단부의 톱니 모양 주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시유하였다.

세계 최고의 인쇄문화: 금속활자 제작과 인쇄

고대 불교문화와 함께 발달한 인쇄 기술은 고려시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가 발명되어 목판활자와 함께 경기지역 곳곳에서 사용되었다. 고려는 뛰어난 인쇄술을 이용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불교 경전 간행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대장경 간행이 그 대표적인 예다.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을 기록한 경장(經藏)을 비롯해 교단의 계율과 해설 등을 망라해놓은 책을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고려는 크게 보아 두 번에 걸쳐 대장경을 만들었다. 거란이 침입한 시기(11세기)에 만든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과 몽골군이 침입한 시기(13세기)에 만든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팔만대장경)이 그것이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고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만든 것이다.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한 <초조대장경>은 11세기 초에 북송에서 수입한 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며,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제1권이기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025
초조대장경 화엄경 권제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第一

고려 11세기
28.5×1,223.5
국보

고려 현종(재위 1011-1031) 때 거란이 침입하자 이를 물리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이다. 중국 북송시기에 만들어져 고려에 수입된 대장경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나, 북송 것보다 더 나은 판본으로 평가된다.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고려 인쇄술을 잘 보여준다. 목판본으로 인쇄된 초조본 중 한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권제1'로, 11세기에 찍어낸 대장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림 7
금속활자의
제작 과정

3. 고려인高麗人의 삶

송나라 역사책宋史에는 고려의 인구가 약 210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인은 고구려계 유민과 후삼국 주민,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다채롭게 섞여 있었다.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과 지역 특산물 등을 세금으로 내고, 나라에서 정한 일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지배층은 과거 등을 통해 중앙 관리로 진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혼인을 통해 높은 가문의 세력을 키우고 고위 관료를 배출하며 문벌門閥 귀족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민심을 좌우한 신앙, 불교

고려의 신앙·종교 문화에는 불교·유교·도교, 그리고 토착신앙 등이 공존했지만, 사람들의 삶에 특히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불교와 토착신앙이었다. 사람들은 출생·결혼·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전반을 불교와 토착신앙에 의지하였는데, 외적의 침입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처의 힘을 빌려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다. 국가가 주관하는 불교 행사가 많았고, 왕실의 도움으로 절을 세우거나 운영하는 경우도 흔했다. 절에는 호텔 역할을 하는 원院을 두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보호했으며,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풀기도 하였다.

백성들도 불교에 의지해 복을 빌고 불교 행사에 참여하였다. 절에 시주하거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사람도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불교의 예법을 따른 화장火葬과 시신을 땅에 묻는 전통 방식이 공존했다. 불교 신앙 활동을 위해 조직된 모임인 ‘향도香徒’는 마을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면서 지역 공동체로서 기능하였다.



026
청동 촛대
靑銅光明臺

고려
높이 39.7

불을 밝히는 초나 등잔을 올려두기 때문에 ‘광명대’라고도 한다. 불교에서의 ‘빛’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부처의 가르침 또는 지혜를 뜻한다. 등잔받침, 기둥,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027
세 발 달린 청동향완
靑銅三足香

고려 11-12세기
높이 34.0

불교의식에서 향을 사르는데 사용하는 물건이다. 향로 중에서 나팔 모양 받침과 발우 모양 몸통을 가진 향로를 향완이라 한다. 받침에는 세 발의 다리가 있고, 뚜껑에는 세 개의 연기구멍이 있다.



028
청동 정병
靑銅淨瓶

고려
높이 36.3

맑은 물을 담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구의 하나이다. 일반 병보다 목이 가늘고 길며 중간에 넓은 마디가 있다.



029
청동 범종
靑銅梵鐘

고려 13-14세기
높이 19.5 | 지름 11.8

범종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 공예품으로, 이 유물은 크기가 작은 종이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의식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앙적 의미가 있다.



031
금강령
金剛鈴

고려
높이 11.8 | 지름 5.6

불교의식에 쓰는 물건으로 손에 들고 흔드는 종이다. 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청동으로 만들었다. 중생의 몸과 마음을 깨우쳐 주는 의미가 있다.



030
청동 사리병
靑銅舍利瓶

고려
굽지름 2.5

사리를 담는 병이다. 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신성하게 여겨졌고, 사리를 담는 용기도 귀한 재료로 만들었다. 보통 여러 겹의 용기에 넣어 안치하였다.



032
감색종이에 은박가루로 쓴 묘법연화경 권제2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二

고려 14세기
31.5×375.0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 이라고도 한다. 본문 글씨는 은분(銀粉)을 사용했고, 경전 내용을 그린 변상도(變相圖)는 금분(金粉)을 사용하였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린 변상도는 고려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일상생활과 가족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남성은 주로 외부 활동을, 여성은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교육 등을 맡았으며, 여성들의 정치·사회 활동은 자유롭지 않았다. 가족 내에서 남편과 부인의 지위는 비교적 동등했고, 임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부일처제가 지켜졌다. 여성에게 이혼이나 사별(死別)이 흠이 되지는 않았고, 재혼도 남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초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지내다가 몇 해가 지나면 살 곳을 새로 정하였다. 재산 상속에서도 딸과 아들의 권리가 같았으며, 결혼 전 여성의 재산이 혼인을 한 후에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넘어가는 일도 드물었다. 부모 봉양, 제사 등의 의무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었다. 개인을 중심으로 촌수(寸數)를 세웠고, 부계(父系), 모계(母系), 처계(妻系)의 권리와 의무가 거의 같았다.



034
청자 철화 넝쿨무늬 유병
靑磁鐵畫唐草文油瓶

고려 12세기
높이 6.1



033
청자 음각 모란무늬 찻그릇
靑磁陰刻牡丹文碗

고려 12세기
높이 6.5 | 입지름 10.6

찻그릇의 바깥 면은 모란꽃과 꽃잎무늬가 음각되어 있고, 안쪽 바닥에는 변형된 구름무늬가 세밀하게 음각되어 있다.



035
청자 상감 국화무늬 향합
靑磁象嵌菊花文香盒

고려 13세기
높이 3.1 | 지름 7.0

뚜껑 윗면에 마름모와 국화무늬를 상감한 청자 향합이다. 원형무늬 바깥으로는 양각으로 선무늬가 장식되어 있고, 옆면에는 구름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036
원관 묘지명
元權墓誌銘

고려 1316년
111.0×57.5×5.0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일생을 정리한 글로 무덤에 함께 묻었다. 이 묘지명은 고려 후기 관료였던 원관(1247-1316)의 것으로, 장단(파주)에서 발견되었다. 묘지명은 당시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민지(閔漬)가 지었다.



038
뼈 항아리
骨壺

고려
28.5×16.0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한 후 유골을 추려 담았던 항아리이다.



037
관 항아리
甕棺

고려 12세기
높이 60.0
안성 매산리 고분

돌덧널(석곽) 안에 옹관을 놓고, 그 안에 화장 후 추려 담은 유골을 넣어 묻었다. 묻힌 사람은 63세 전후이며, 신장은 165cm 내외인 죽산지역에 거주했던 남자로 추정된다.



039
석관
石棺

고려

고려에서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火葬)이 이루어졌고, 화장 후에 유골은 옹관이나 석관에 담아 땅에 묻었다. 저승에서 죽은 이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석관 내부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四神圖)를 그려 넣었다.

4. 또 다른 출발

새 나라 조선朝鮮

고려는 공민왕恭愍王(재위 1351-1374) 때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정치·사회를 변화시키려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권문세족에 맞서 새롭게 성장한 무인 세력과 사대부 가운데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은 이색·정몽주 등의 온건개혁파를 무력으로 제거하고 1392년 이성계를 임금으로 옹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새 나라의 이름은 옛날의 조선(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조선朝鮮’이라 하고, 도읍을 한강의 북쪽, 한양漢陽으로 정했다. 조선은 유교를 기본정신으로 삼아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백성이나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民本’사상을 중시했다. 명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정책을 폈기에,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학문과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040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 초상
恭愍王與魯國大長公主像

조선
73.0×56.0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퇴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명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에 고려의 왕이 되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정책을 실시했고,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농장·노비를 없애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다.

이 그림은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다.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가 서로 마주 보듯 앉아 있다. 공민왕은 복두를 쓰고 홍포단령에 홀을 들고 있고, 노국대장공주는 복잡한 머리 모양에 당나라 복식을 하고 있다.



041
정몽주 초상
鄭夢周肖像

조선 16세기
172.7×104.0
보물

정몽주(1337-1392)는 고려 말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이자 뛰어난 성리학(주자학)자이다. 원·명·일본과 복잡하게 얽힌 외교 문제를 여러 차례 풀어낸 유능한 정치가이기도 했다. 이성계, 정도전과도 한때 뜻을 함께 하며 고려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려왕조'를 지키려다 이방원 세력에게 죽음을 맞이했다.



042
조선 태조 어진
朝鮮太祖御眞

조선 1872년
220.0×151.0
어진박물관 소장

이성계(재위 1392-1398)는 고려 말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 주자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이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여러 차례 물리치는 데 남다른 공을 세웠으며, 위화도 회군을 기회로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정도전·조준 등 새롭게 성장한 신진사대부 세력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열었다.

5. 경기, 나라의 근본

조선의 경기

경기도가 지금과 같은 크기, 모습이 된 것은 조선시대다. 태조 이성계는 1394년에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제3대 태종 때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는데, 고려 말에 경기를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었던 것을 1414년에 합치고 그냥 경기京畿라고 하였다. 경기는 한반도 중부지역에 자리하며 도읍인 한양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조선의 주요 도로는 모두 경기로 통하였고, 새로운 사상과 문물은 경기에 먼저 들어와서 이곳에서 재창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기는 조선시대 사대부士大夫 문화의 중심지였다. 한양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대부들은 사회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용을 강조하는 양명학陽明學, 실학實學 등을 통해 개혁을 모색하였다. 이 때문에 경기는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새로운 사회로 향하는 물줄기였다고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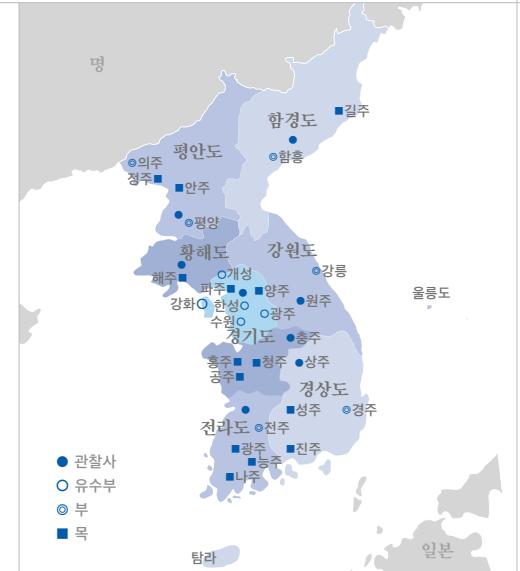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와 경기감영京畿監營

조선왕조는 태종 때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국왕의 대행자인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국왕-관찰사-수령으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였는데, 경기를 다스리는 관찰사의 임명 요건은 유독 까다로웠다. 뇌물죄가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나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되었고, 경기도 출신자 역시 경기도에 복무하는 친척이 있으면 상피相避 규정에 따라 임명되지 못했다.

관찰사의 임무는 막중하였고, 권한도 막강했다. 임금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었고, 도내 수령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군사 및 사법·행정을 총괄하였다. 특히 경기도에는 왕실의 능원묘陵園墓와 선현의 무덤이 많았으므로 임금의 왕릉 행차에 따른 각종 준비 작업을 경기관찰사가 수행하였다.

감영監營은 각 도道の 관찰사가 거처하며 업무를 처리하던 곳이다. 경기감영은 기영畿營 또는 포정사布政司로도 불렸는데, 주요 부서로서 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의 6방房이 있고, 주요 관원으로서 관찰사를 보좌하는 경력經歷, 도사都事, 판관判官 및 실무행정 관원들이 있었다. 경기감영은 1413년(태종 13) 수원에 설치되었으나 이듬해에 광주로 옮겼으며, 세조 때 한양 돈의문 밖으로 다시 옮겨 갔다. 이후 몇 차례 도성 안팎으로 이전을 거듭하다가 1896년 수원에 자리 잡았다.

그림 8
조선시대
행정구역





043
예조에서 경기감영에 보내는 문서
畿營了

조선 1893년 | 23.0×2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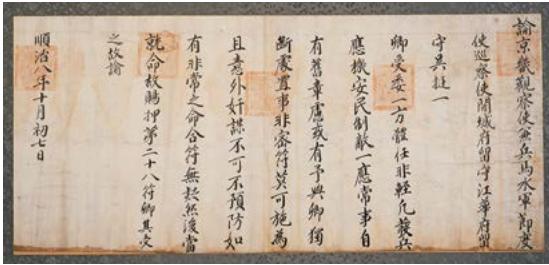
고종 30년(1893) 예조에서 경기감영畿營, 강원감영東營, 선혜청 등에 보내려고 작성한 문서의 초안이다. 경기감영에는 왕릉, 후궁 또는 왕자의 무덤園所 주위의 토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 각 군현[시군]으로 발송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적혀 있다.



045
경기도 관리의 근무평가서
京畿道褒貶等第

조선 1824년 | 36.6×145.6

순조 24년(1824) 경기관찰사 박종기朴宗琦(1767-?)가 경기도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이다. 관찰사는 관내의 모든 수령 등을 규찰하여 연 2회 근무를 평가하였다. 이 평가는 포상 및 징계와 직결되어 있어 관찰사의 절대적인 권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고과를 상·중·하로 평가하는 뚜렷한 비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044
경기관찰사로 부임하는 오정일에게 내린 왕명
吳挺一諭書

조선 1651년 | 51.0×122.5

효종 2년(1651) 10월 7일 오정일을 경기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로 임명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징표인 동글납작한 나무패인 병부兵符 제28 부를 내리는 문서이다.



046
경기관찰사에게 올리는 민원서류
議訟

조선 후기
77.5×54.0

일반 백성이 경기관찰사에게 올린 민원서류이다. 의송은 대개 수령에게 청원(所志) 형식의 민원을 냈다가 관철되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다시 올릴 때 사용하는 진정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파주에 사는 노익섭이 조상 무덤 주변의 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올린 진정서이다.



047
홍섬 묘지
洪瀨墓誌

조선 17세기 전반
각 장 24.5×19.5

홍섬(1504-1585)의 자는 퇴지退之, 호는 인재忍齋이다. 선조 4년(1571)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을 3번이나 지낸 대신이다. 《주역》·《서경》에 밝았고 문장에 능했다. 중종 38년(1543) 10월 4일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 지식은 회색이 많이 감도는 백자에 철화 안료를 사용하였다. 17세기 초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048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粉靑沙器象嵌 '正統4年銘' 金明理墓誌

조선 1439년
34.0×22.0

보물

성천도호부 부사成川都護府副使를 지낸 김명리(1368-1438)의 가계와 평생을 정리한 묘지이다. 고려 말 성리학자로 유명한 적약재 김구용의 아들이다. 집현전직제학을 지낸 류의손柳義孫이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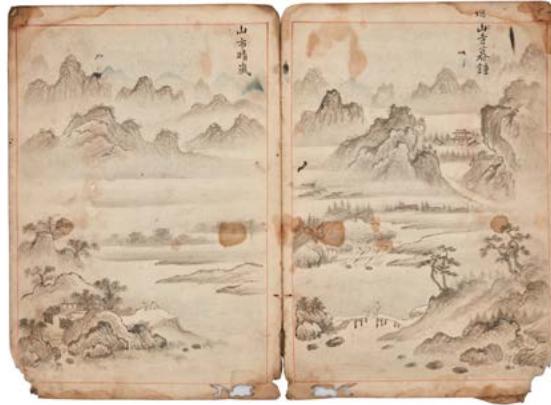
상단의 연꽃봉오리를 투각으로 장식한 종 모양의 분청사기와 해서체로 정갈하게 새긴 글씨는 도자사와 서예사에서 가치가 크다. 또 바닥에는 장례를 모신 행사 '학민'과 산지기 '단동'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049
관리들의 계모임
契會圖

조선 후기
36.2×25.2

허적許積·이경석李景奭·한형길韓亨吉 등이 계모임契會를 그린 그림이다. 첫 장에 계원 10명의 품계와 관직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형길은 경기관찰사를 지냈다.



일반적인 계회도에서는 산수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계원의 모임 장면은 작게 상징적으로만 그리는데, 이 그림은 모임 장면 없이 산수를 소상팔경瀟湘八景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 이례적이다.



050
경기감영도 12폭 병풍
京畿監營圖十二幅屏風

2002년
송규태 모사
203.0×460.0

인왕산·북악산·삼각산 아래로 넓게 펼쳐진 돈의문 밖 경기감영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 오른쪽 제1폭에 돈의문이 있고, 제5·7폭에 걸쳐 경기감영이 보인다. 제6폭의 중앙에 감영의 본관 건물이 있는데, 건물 정면에는 “임금의 덕을 베풀고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인 ‘선화당宣化堂’이란 편액을 달았다. 경기감영 주위로 영은문·모화관·활터 등 주변 지역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경기감영과 주변의 경관 및 시설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화이자 주변 지형 등을 파악하여 그린 일종의 회화식 지도이다. 또한 감영 주변의 수많은 민가와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풍속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제4·6폭 하단에는 관찰사 행렬과 구경꾼들의 모습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경기감영이 사대문 안에 위치한 것은 왕실과의 관계에서 경기의 위상을 보여준다.



051
이재학 초상
李在學肖像

조선 19세기
113.8×57.4

이재학(1745-1807)은 아들 이규현과 손자 이원명과 함께 3대에 걸쳐 경기관찰사를 지냈다. 1777년과 1793년 청나라 사신의 서장관과 부사로 2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다녀왔고, 경기 관찰사로 총융청과 수어청의 폐단 시정, 연천 송의전의 수리, 가뭄에 따른 농사 대책 등을 건의했다.

우측 상단에 50세 때의 모습이라 적혀 있는데, 1799년(정조 23)에 해당한다.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오사모에 쌍학 문양의 흉배가 부착된 단령을 입고, 정2품의 관직을 나타내는 삼금대鍍金帶를 두르고 있다. 하지만 전신상임에도 화폭이 크지 않은 점, 단령의 묘사나 호피 깔린 의자, 깃바퀴의 질은 음영, 입술 채색이나 질감 처리 등을 감안할 때, 생전에 그려진 초상화를 토대로 축소하여 이모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6. 경기를 지키다

경기는 임금이 사는 곳을 감싼 지역이기에 외적으로부터 경기도를 지킨다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킨다는 뜻이었다. 조선 초기 국토방위의 기본 전략은 군사요충지에 주력 부대를 배치해 침입하는 외적을 막는 것이었다. 그런데 1차 방어선이 뚫리면 내륙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허점이 임진왜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자, 조선 후기에는 5군영軍營 체제로 전환하였다. 5군영은 임진왜란 때 만든 훈련도감訓練都監을 비롯해 어영청御營廳·충융청忠淸營·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 등을 가리킨다. 충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의 외곽 방어를 맡은 군영이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592년(선조 25) 4월부터 약 20여만 명의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壬辰倭亂). 일본군은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뒤 세 갈래로 나눠 북상하였다.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선조는 피난길에 오르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한양을 적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얼마 뒤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바다에서 거둬 크게 승리하며 전세를 역전시켰고 육지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활약에 힘입어 점차 전쟁의 국면이 바뀌었다. 경기지역에서는 독산성(오산) 전투와 행주대첩을 통해 일본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1593년 명나라가 참전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잠시 전투를 멈추었으나, 5년간의 강화협상이 결렬되자 1597년 일본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다(정유재란丁酉再亂). 그러나 일본군은 육지와 바다에서 참패를 거듭하였으며, 1598년 11월 노량해전露梁海戰을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났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조선과 명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만주지역에서는 여진족이 독립하여 후금後金을 세웠다. 후금은 1627년에 조선을 침략하였다(정묘호란丁卯胡亂).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다가 곧 후금과 형제국이 되겠다는 강화조약을 맺었다. 1636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淸으로 바꾸고 조선에 신하국의 예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침략하였다(병자호란丙子胡亂). 태종 홍타이지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불과 보름여 만에 한양에 닿았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청나라 군대와 대치하다가 40여 일 만에 항복하고 한강변의 삼전도에서 청의 신하국임을 인정하는 예를 올렸다. 그리고 세자를 비롯한 왕자·대신들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냈다.



그림 9
임진왜란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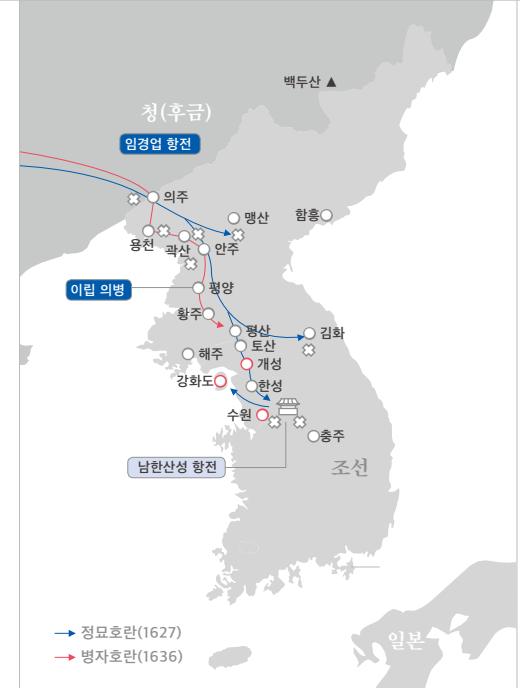


그림 10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전개



052

명나라 황제가 내린 여덟 가지 선물
八賜品圖

조선 19세기
각폭 174.0×46.5

명나라 황제 신종이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1545-1598]이 보여준 전공을 포상하기 위해 여덟 종류의 군사 기물을 선물했는데, 이를 각각 1쌍씩 그린 그림이다.

각 폭마다 도독인, 호두령패, 귀도, 참도, 독전기, 홍소령기, 남소령기, 곡나팔의 모습을 설명과 함께 담았다.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 지방관아 수령의 집무실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053
원균 선무공신교서
元均宣武功臣教書

조선 1604년
37.9×272.0
보물

선조 37년(1604) 원균(1540-1597)을 선무공신 1등으로 녹훈하는 교서이다. 그는 이순신·권율과 함께 선무공신 1등으로 책봉되어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되고 원릉군에 봉해졌다. 이 교서에는 원균이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왜군을 대파했고, 정유재란 때는 통제사로 왜적을 물리치다 전사한 그를 선무공신 1등으로 녹훈하고, 본인과 부모 및 처자는 3품계를 올리고, 노비와 토지 등을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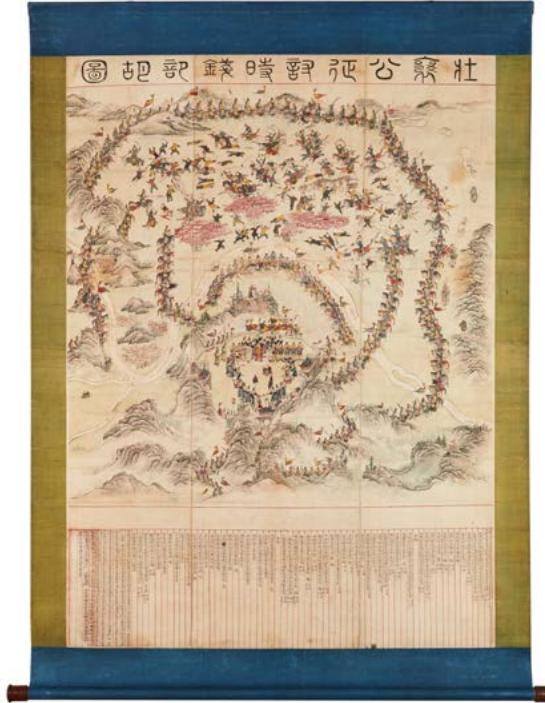


054
송언신 초상
宋言愼肖像

조선 1604년
이재관 李在寬
167.0×93.0
보물

송언신(1542-1612)은 임진왜란 때 세운 공으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봉되었는데, 이 초상화는 그 공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1596년(선조 29) 6월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오른쪽 아래에는 선조의 교서가 있는데, 선무공신을 사양하여 공신에서 빠졌으나 초상화는 이미 완성되어 보낸다는 내용이다. 왼쪽 아래에는 그 공을 칭송하는 화상찬이 있다.

높은 오사모를 쓰고, 흑단령을 입고 있다. 사모는 다소 높고 평평하며, 각은 넓고 끝이 둥글며 평행으로 뻗어 있다. 단령은 깃 나비가 좁으며 목선을 따라 완만하게 파여 있다. 가슴에는 구름과 모란 무늬 사이에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기러기가 있는 운안홍배를 달았고, 정2품에 해당되는 삼금대를 착용하고 있다.



055
여진족 시전부락 토벌도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조선 1849년
133.0×100.3

함경북도 병마절도사였던 이일李鎰(1538-1601) 장군이 선조 21년(1588) 함경도를 자주 침략했던 여진족 시전부락을 정벌하는 모습을 그린 기록화이다. 위쪽에 그림의 제목이 있고, 중앙에 여진족을 토벌하는 전투장면을 그렸다. 아래쪽에는 전투에 참여했던 이일을 비롯하여 휘하 장병들의 계급과 이름이 있다. 우화열장右火將으로 백의종군한 이순신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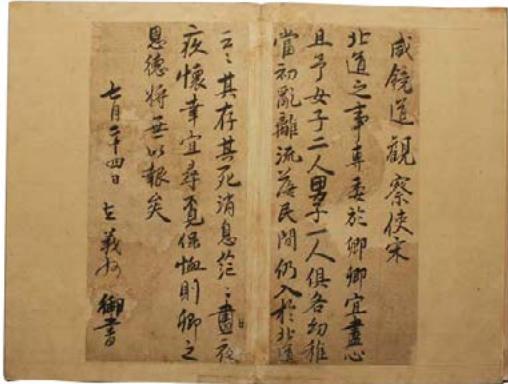


056
승자총통
勝字銃筒

조선 1583년
4.9×57.2

2000년 3월 14일 양평군 남양홍씨 묘역에서 출토된 것이다. 총 3점이 발견됐는데 2점에서 당시 사용 흔적을 알려 주는 화약·탄환 등의 장전물이 발견됐다.

일곱 개로 된 대나무마디 모양의 부리와 약실·자루로 이뤄진 전형적인 조선시대 승자총통으로, 손잡이에는 음각으로 제작 연대와 명칭, 무게, 제작한 장인의 이름 등을 새겼다.



057
송언신에게 보낸 선조의 비밀편지
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

조선 1593-1599년
36.6×24.2

선조 26년(1593)부터 선조 32년까지 7년에 걸쳐 함경감사 송언신에게 내린 밀찰 7건에 별지 2장을 합친 선조의 비밀편지이다. 선조가 피난했던 의주에서 보낸 선조 26년 7월에 보낸 편지는 북쪽 변방의 일을 송언신에게 위임하고 피난 중에 헤어진 왕자와 공주를 찾아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한 내용이다.

임진왜란의 정황, 북방 방어 등 국방에 관한 사정, 사신왕래, 선물 교환, 의식 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058
이완 투구와 깃대
李浣靑旗帶

조선 17세기
높이 28.6 | 지름 22.0

이완(1602-1674) 장군이 생전에 사용했던 투구와 깃대이다. 철로 된 종형 투구 앞면 아래는 당초무늬를 금으로 상감한 얇은 판을 돌렸다. 투구 위는 용·연꽃·당초무늬 등을 금 상감으로 투각하였고, 중심에는 술을 달 수 있는 팔각형의 대가 있다.

의전용 깃대의 날 끝부분에는 군기를 달기 위한 구멍이 두 개 뚫려있다. 창날의 단면은 삼각형이고, 한쪽 면에 홈을 파고 금을 입사하였다. 나무 손잡이 연결부분에는 황동으로 만든 띠를 돌렸다.

새로운 수도방위체제, 유수부留守府

조선왕조는 두 번의 큰 전란을 겪은 뒤 도성과 경기지역의 방어체제를 바꾸었다. 5군영 체제를 도입하고 경기지역에는 유수부留守府를 더 두어 방어력을 높였는데, 세종 때 설치한 개성유수부 외에 정묘호란 직후 설치한 강화유수부, 정조 때 화성 축성과 함께 설치한 수원유수부, 남한산성을 수리 하면서 설치한 광주유수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수부 체제는 수도권의 도시화와 상업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17세기 후엽 한양과 인근 지역에 큰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더니 장시가 발달하였고, 1791년(정조 15) 시전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한 정책이 시행되자(신해 통공辛亥通共) 상업이 더욱 발달하였다. 특히 정조는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중심지인 유수부와 인근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도시가 크게 성장한 경기도를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추진하였다.



059
관리 명단을 기록한 책
縮紳便覽

조선 후기
28.5×17.0

조선 후기 전국의 행정 및 군사조직을 각 도별로 구분하고, 각 도마다 해당 부서의 이름과 책임자, 생몰년 등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다.

앞쪽에는 중앙관리의 명단을, 뒤쪽에는 각도의 관찰사·부사·현감 등의 외직 명단이 적혀있다.



060
해좌전도
海左全圖

조선 19세기 후반
98.0×58.0

각 군현의 산천·도로·역사찰·군사기지·나루 등을 수록한 전국지도이다. 각 읍 옆에는 서울까지의 거리를 기록했고, 도로는 붉은색, 각 도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한 뒤 채색하여 구분했다.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도가 山島(독도)가 표기되어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 서남해안 및 도서 지역의 군사적 요지와 나루 등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해좌’란 ‘바다 왼쪽’이란 뜻으로, ‘해동海東’과 같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061
동국지도
東國圖籍

조선 후기
11.4×5.5

접고 펼치기 쉽게 만든 팔도지도이다. 역·진·진·보·산·성·호구·전·결·속·오·군 등 군사 관련 내용과 간략한 내력 등을 각 도별로 소개하였다. 간편하게 휴대할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경기의 경우 경역京驛 2곳을 포함하여 8역, 5진, 7보, 6산성, 129,892호의 인구, 101,253결의 논과 밭, 22,122명의 속오군, 강화·광주·양주·죽산·수원·남양·장단의 수영·水營에 속한 군사와 선박 등이 기록되어 있다.



062
이규현의 교지를 모은 책
判書府君官教

조선 1814-1844년
46.5×22.8

순조 14년(1814)부터 헌종 10년(1844)까지의 30년 동안 이규현이 받은 교지를 묶은 책이다. 이·호·예·병·형·공의 6책이다.

문과 급제 후 말단인 정8품의 승의부위承義副尉부터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까지 관직의 변화 과정을 모두 살필 수 있다. '판서부군'은 이규현이 형조판서를 역임한데서 붙여졌다. 그중 사진 속 교지는 헌종이 이규현을 경기 관찰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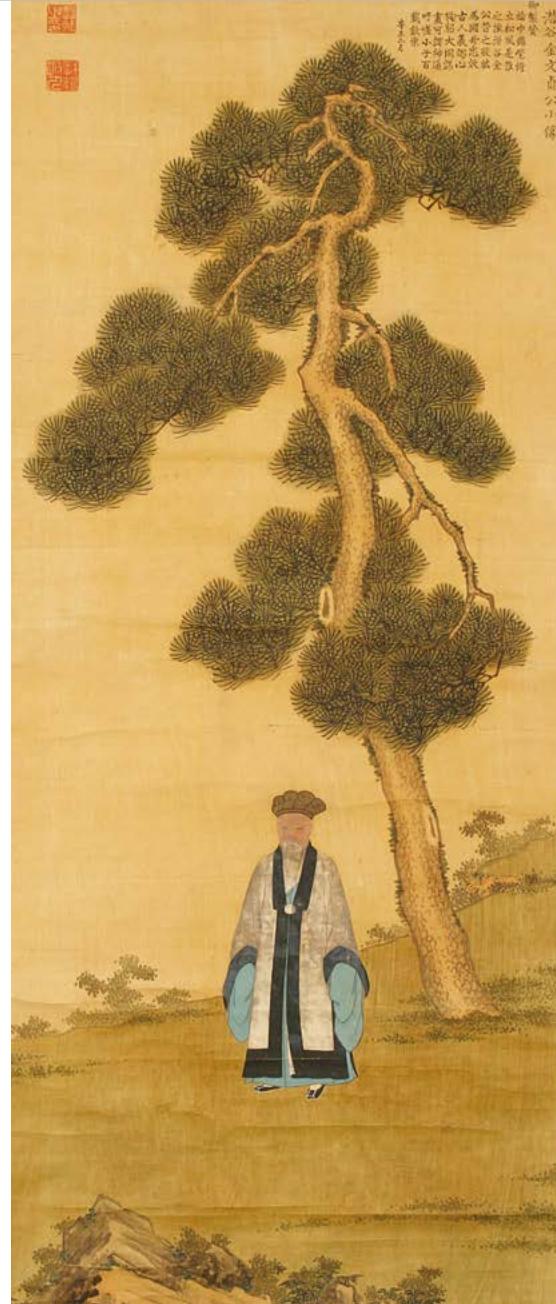
7. 개혁의 중심, 경기

조선의 모든 길은 경기로 통했고, 경기는 국토의 동서남북을 쉽게 연결했다. 경기를 향해 뻗은 교통로를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시장과 도시가 발달했다. 강과 연결된 바닷길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싹을 틔우고 다른 곳으로 전파하는 곳이 경기였다.

이런 특성은 ‘경기’를 개혁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세종 때 토지세 개혁안(공법眞法)을 실험한 곳도,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 일컫는 ‘대동법’을 처음 실험한 곳도 경기였다. 조선 후기에 민생民生을 위한 새로운 학문인 실학實學의 중심도,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곳도 모두 경기였다. 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혁의 기운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으며, 미래를 향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그것이 ‘경기도’, ‘경기인’의 힘이었다.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과 대동법大同法

조선 후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이 시기 새롭게 도입된 조세 제도인 대동법大同法이다. 조선의 백성들은 모두 전세田稅, 공납貢納, 부역負役 등의 3가지 의무를 지고 있었다. 전세는 논밭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역은 일정 기간 대가 없이 나라일을 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중에서도 백성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고된 것은 공납이었는데, 한번 공물貢物로 항목이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웠고 정해진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비싼 값에 사서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인, 하급관리, 권세가 등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폐해가 16세기 초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뒤 특산물 대신 토지의 크기에 따라 쌀 일정량을 국가에 내게 하는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이 경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수많은 반대와 토론, 시행착오를 거치며 강원도(1625년), 충청도(1651년), 전라도(1658년), 경상도(1677년), 황해도(1708년) 지역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그 이름도 대동법으로 보편화되었다.



063
소나무 아래의 김육
松下閒遊圖

중국 명 1637년
호병 胡炳
119.3×49.8
실학박물관 소장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육(1580-1658)이 인조 15년(1637) 북경에서 호병을 만나 관복본 초상화와 함께 그려온 그림이다. 그림 속의 김육은 용관에 학창의를 입고 소나무 아래 서있다. 얼굴에는 붓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마마 자국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큰 소나무 아래에 있는 주인공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소상小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064
잠곡 김육의 시문집
潛谷遺稿

조선 17세기 후반
33.0×21.0
실학박물관 소장

김육(1580-1658)의 평생 저술을 모은 책이다. 우의정으로 대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효종에게 건의한 문서 등이 실려 있다. 그는 대동법을 적극 시행하였고,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전국적인 확대를 관철시켰다.

잠곡은 광해군 때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그가 낙향해서 생활했던 가평 잠곡에서 유래한 호이다.



065
오리 이원익의 시문집
梧里集

조선 후기
33.5×21.0

이조판서·영의정 등을 지낸 오리 이원익李元翼(1547-1634)의 시문집이다. 그는 영의정으로 임진왜란 이후 공납제 폐단이 다시 발생하자 호조참의 한백겸이 건의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경기도에 실시하고 토지 1결 당 쌀 16말을 바치도록 하였다. 이것이 대동법의 전신인 경기선혜법이다. 이 법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관료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존폐 논의를 거듭하다가 경기도에서만 시행되는 것에서 그쳤다.



8. 조선의 문화를 이끈다

경기도는 한양의 지식문화를 공유하면서 지역적 특성인 개방성도 갖추어 조선 후기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경기지역은 명망 높은 사대부가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사대부 문화는 문학과 예술을 아울렀다. 문인들을 중심으로 서화書畫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개성 넘치는 분청사기가 유행했으며, 왕실 백자의 고향이자 조선 최고의 도자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

학문·사상에서는 16세기 화담학과花潭學派와 율곡학과栗谷學派를 필두로 18세기 실학實學과 서학西學 등 진보적인 학문이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허목·이익·강세황·채제공·정약용·이승훈 등 학문적 유연성을 갖춘 경기의 지식인들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백성들을 위한 국가 개혁에 관심을 기울였다. 경기인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선구자였다.

실학의 탄생지

실학은 18세기 전반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말한다. 실학이 태동한 시기는 서양 세력이 동양에 진출하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전환기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에 국토가 황폐해진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이 발달하여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해진 때이기도 했다. 당시 학문계는 백성들의 생활과는 다소 동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의 하나로 등장한 실학은 실용을 중시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일찍이 정인보鄭寅普는 조선 후기 실학의 계보를 “반계磻溪가 일조一祖요, 성호星湖가 이조二祖요, 다산茶山이 삼조三祖다”라고 하여 반계-성호-다산을 주축으로 한 실학 계보를 정리한 바 있다. 반계 유흥원柳馨遠은 실학을 개창한 인물이고, 성호 이익李瀾은 실학을 체계화한 인물이며,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사람은 모두 정치적으로 남인南人이었으며, 경기지역에서 성장하였다. 이에 조선 후기 실학을 경기지역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066
김육 초상
金堉肖像

중국 명 17세기
전 호병 胡炳
174.5×99.1
실학박물관 소장

김육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이다. 숙종의 외증조이면서 실학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사신으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곳에 머물던 당시 중국 화가에게 주문하여 그린 초상화로 보인다.

대례복大禮服을 입고 사모紗帽를 쓴 전신상이다. 노인의 모습임에도 마치 신선과 같은 당당한 풍채를 보인다. “마음을 다해 체국體國했다”는 숙종의 어제찬御製贊이 함께 전해진다. 1751년 2월 영조는 이 초상을 직접 열람하고 숙종의 글에 대해 차운하기도 하였다.



067
서양 천문학이 반영된 달력
時憲曆

조선 1730년
실학박물관 소장

시헌력은 서양 역법을 기초하여 만든 청나라 역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력의 기반이 된 달력이다. 이전에 사용되던 역법이 동지를 기점으로 24기氣를 균등하게 취한 평기법平氣法이었던 것과 달리, 이 달력은 황도를 15°씩 분할하여 태양의 각 분점을 통과할 때를 취하는 정기법定氣法을 사용하여 24절기를 측정하였다. 1654년부터 대한 제국 때까지 공식 달력으로 사용되었다.

사대부의 그림과 글씨

고려시대에 개성을 비롯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예술의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의 전통과 중국에서 전래한 화법을 토대로 새로운 화풍이 형성되었다. 안평대군의 후원으로 안견이 화단을 주도했지만, 시흥에서 활동한 강희안·강희맹 형제 등 경기 출신 문인들의 그림도 돋보였다. 서예에서는 조선 전기의 4대 명필이 경기도에서 활동했다. 특히 포천의 양사언은 해서와 초서에 능했고, 개성에서 활동한 한호는 조선 고유의 서체인 '석봉체'를 창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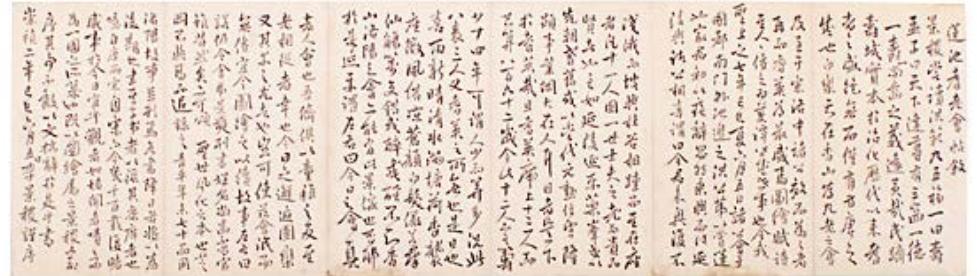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안산에서 활동한 김명국, 경기 관찰사를 지낸 홍수주 등이 뛰어난 수묵법을 구사하며 한국적 화풍을 형성했다. 영·정조 때에는 진경산수의 정수를 보여준 정선의 화풍이 유행하였다. 또 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들은 화단의 중심이 되었는데, 시·서·화·書 삼절三絶로 불린 강세황, 남종화의 대가 심사정 등이 그들이다. 서예에서는 허목이 전서篆書에 능해 미수체眉叟體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안해 냈고, 파천에 은거한 김정희는 추사체秋史體를 창출하였다.



068
천문시계
渾蓋通憲儀

조선 1730년
실학박물관 소장

혼개통헌의, 또는 아스트로라브 astrolabe 라고 불리는 이 천문시계는 고대와 중세의 여행자들에게 가야할 방향과 시간을 알려 주는 가장 정교하고 정확한 도구였다. 이 천문시계를 사용해 해와 별이 드는 시간과 지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미래나 과거의 어느 날짜에 천체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었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북학파 실학자들과 교류하고, 기하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유금柳鎭(1741-1788)이 제작하였다.



069
연꽃이 만발한 연못에서 선비들의 모임
蓮池耆老會帖

조선 1629년
이광사 李匡師(1705-1777)
28.6×99.7

승정원 좌승지이던 이유간이 속했던 연지기회회의 서문이다. 이유간의 아들로 당시 예조참판이던 이경직이 썼는데, 후에 5대손인 이광사가 다시 쓴 것이다.

내용은 <남지기회도>에 수록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의 선비 12명이 승례문 앞에 있던 홍사효의 집에 모여 모임을 만들게 된 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070
배와 김상숙의 글씨
窩筆帖

조선 후기
김상숙 金相肅(1717-1792)
34.2×20.7

서화이론가로 위진魏晉의 고법古法을 추구했던 김상숙의 서첩이다. 두보의 시를 초서로 썼고, 그림 2점이 포함되어 있다. 글씨 중 일부는 왕희지체 소해로 쓴 것이다.



072
추사 김정희의 편지 모음
寶覃齋往復簡

조선 1857년
김정희 金正喜(1786-1856)
36.1×26.0

서예가이자 고증학자였던 추사 김정희의 편지를 모은 첩이다. '보담재'는 추사의 호 중에 하나이다. 64세 되던 현종 15년(1849)부터 7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량·일휴정日休亭·마포·과천 등지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서첩 형태로 만들었다.

추사체가 무르익은 시기에 그 정수를 모은 것으로, 과천에 은거한 추사의 말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071
궁중 물자를 조달하는 관리들의 계모임
六司契帖

조선 1635년
30.3×168.0

궁중의 물자를 조달하는 부서의 관리들이 모여 만든 계의 명부이다. 발문은 인조 13년(1635) 태당 이식李植(1584-1647)이 썼다.

초서로 쓰였는데, 정갈하고 기이하며 모난 방필과 둥근 원필의 필세가 리듬감 있게 이어져 있다.



073
강세황 초상
姜世晁肖像

조선 18세기
58.5×40.0

영조-정조 때 대표적인 문인화가로 시·서·화에 모두 능했던 강세황(1713-1791)의 초상이다. 그는 안산에 은거하며 김홍도·심사정·최북 등의 화가, 안산 15학사라고 불리는 문인들과 교류하며 조선 후기 예원의 총수로 불렸다.

이 초상은 그의 71세 때 모습이다.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명기가 그린 초상과 같은 솜씨의 반신상이다.



074
송시열 초상
宋時烈肖像

조선 19세기
57.8×50.5

근기노론의 영수이자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초상화이다. 심의를 입고 복건을 쓴 모습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던 유학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 초상은 그를 숭모하고 학문을 계승하려 했던 후학들에게 많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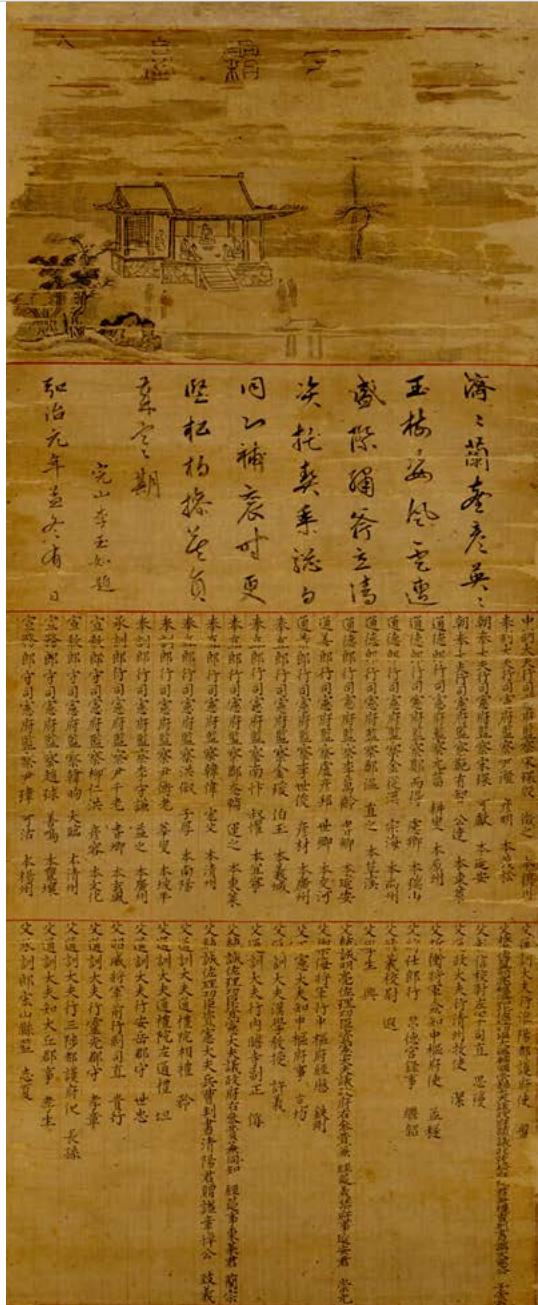
그림 위쪽에 초상화의 제목이 있으며, 얼굴 좌우에는 유한지俞漢芝가 예서로 작성한 화기畫記가 있다.



9. 예술로 꽃피우다

조선시대 서화書畵는 고려시대의 전통과 중국 전래의 화법을 토대로 새로운 화풍을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남인 계열의 문인들이 모여들면서 안산지역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고, 안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들은 화단의 주류가 되었다. 나아가 경기지역에서는 민화 등의 서민예술문화도 발달하였다.

경기는 분청사기粉靑沙器와 백자白磁를 만드는 도자 생산의 중심지였다. 특히 백자는 조선 초기부터 광주지역에 설치된 사용원의 분원分院에서 제작되었기에, 경기가 도자기 생산에 중추였다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경기인이 조선 문화의 리더로서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여 경기 특유의 문화를 만들어 냈다.



075
사헌부 관원들의 계모임
二十三霜臺會圖

조선 1487년
91.0x32.0

보물

사헌부 감찰관원 23명의 계모임을 기념하여 그 일을 기록하고 그린 그림이다. 계회契會 장면이 담긴 그림에는 간략한 필치로 전각 안팎의 인물을 비롯하여 담장과 출입문, 수목과 바위 등 주변 경물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림 좌측 아래의 수목과 암석에 묘사된 백묘와 선묘, 농담으로 변화를 준 필치와 건물에 적용된 투시법은 15-16세기 기록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현존하는 계획도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076
한 여름 봉암에서의 피서
鳳巖避暑

조선 18세기
윤제홍 尹濟弘(1764-?)
31.5×482.0

윤제홍과 박사문이 한 여름 봉암에서 피서를 하면서 시·서·화를 나눈 문인 취향의 작품이다. 윤제홍은 양주 출신의 문인화가로 빼어난 절경을 담은 실경산수를 잘 그렸다.

이 그림은 채색을 하지 않고 수묵으로만 널찍한 바위에 앉아 절경을 즐기는 두 사람을 그리고 있다. 왼쪽에 먼 산과 바위산 사이로 드러난 소나무 숲은 농묵의 거친 필치로 그렸고, 오른쪽의 소나무는 세밀하면서 정갈하게 묘사하였다.



078
원교 이광사의 글씨첩
眞嶠眞墨

조선 18세기 중엽
이광사 李匡師(1705-1777)
26.1×16.9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근기소론의 계보를 이은 이광사(1705-1777)의 글씨첩이다. 귀양 가기 이전인 영조 31년(1755)의 노년 글씨로 해서·행서·초서로 쓰였다.

해서는 방정하고 담백하게 썼는데 '원교노자眞嶠老子'라는 인장을 찍었다. 행서는 글자마다 많은 움직임이 있으며, '광사匡師', '도보道甫' 등의 인장을 찍었다. 초서는 행간이 넓으며 물흐르듯 자연스러움과 붓의 빠른 변화가 생동감을 준다.



077
정조 어필
正祖寶墨

조선 후기
정조 正祖(1752-1800)
38.8×1, 834.0

정조가 정조 19년(1795) 숙빈최씨毓祥宮, 정빈이씨延祐宮, 영빈이씨宣禧宮을 차례로 참배한 후 사도세자의 사당 옛터 근처에 있던 세심대에 올라 느낀 감회를 친필로 쓴 서첩이다. 끝부분에 지지대고개의 연원이 밝혀져 있다.

정조의 어필로 안전경체의 행서가 힘차고 운필이 빠르며, 짜임이 중심으로 모이는 점과 질박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079
강가의 한가로운 풍경
江上閑趣圖

조선 18세기
김홍도 金弘道(1745-?)
21.3×36.5

단원 김홍도는 조선 최고의 화원으로 어린 시절 안산에 머물면서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웠다. 그림 가운데에 큰 소나무를 비스듬하게 배치하고, 구불구불한 필선으로 나무 동치와 가지의 윤곽선을 표현한 것은 김홍도 특유의 기법이다. 오른쪽에는 나무와 절벽을, 왼쪽에는 넓은 공간을 대비시켜 작은 화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080
눈 내리는 양화나루
楊花踏雪圖

조선 18세기
정선 鄭愼(1676-1759)
22.0×32.2

진경산수로 조선의 산천을 그린 겸재 정선의 그림이다. 그는 양천현령을 지내며, 한강 일대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이 그림도 은예부터 경치가 빼어나기로 소문난 양화나루의 눈 내리는 전경을 그린 것이다. 나귀 탄 나그네와 그를 기다리는 사공,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강을 저어가는 나룻배의 모습이 정감 있다.

복을 가져다주는 그림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필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화서(圖畫署)라는 별도의 관청을 두었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원(畵員)들이 궁궐의 행사장을 꾸미거나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등의 일을 맡았다. 화원의 그림이 잘 남아 있는 것은 주로 병풍 형태인데, 십장생도(十長生圖),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책거리(冊架圖) 등이 있다. 모두 나라의 태평성대와 장수와 건강,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동시에 불행과 재앙을 막으려는 마음을 담고 있다.

민간에서도 조선 후기에는 복을 염원하는 그림이 유행하였다. 새와 동물, 꽃과 풀을 소재로 삼은 영모화(翎毛花卉畵)나 문자도(文字圖)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대중적인 그림들은 오늘날 민화(民畵)로 불리며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민화는 시대와 계급을 뛰어넘은 소망과 염원을 담아 상류층이나 신흥 부유층은 물론 서민층에까지 유행하였다.



081
곤륜산 연못에서 열린 잔치
瑤池宴圖

조선 19세기 | 각 폭 134.2×47.2

여성 신선의 우두머리인 서왕모(西王母)가 그 거처인 곤륜산(崑崙山)의 연못(瑤池)에서 주나라 목왕의 방문을 받고 연회를 베풀었다는 설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화면에는 삼천년 만에

열매가 열린다는 복숭아(蟠桃), 마당에서 춤추는 봉황, 연회에 초대받은 여러 신선 등 신선세계를 통해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신선도의 일종으로, 탄생이나 혼인 등 축하 행사를 위해 많이 그려졌다. 『경도잡지(京都雜志)』와 『임원경제지(臨園經濟志)』에서는 부부의 화목과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한양가(漢陽歌)』에서는 광통고(廣通歌) 그림가게에서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082
헌종의 혼례 축하잔치
憲宗嘉禮陳賀契屏

조선 1844년
각 폭 112.547.246.5
보물

1844년(헌종 10) 10월 22일 헌종이 계비인 효정왕후를 맞이하여 가례嘉禮를 올리고 진하進賀하는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제1첩에 국왕의 혼인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는 예문관제학 조병구趙秉龜가 지어올린 반교문이 있고, 제8첩에는 정3품에서 정9품에 이르는 선전관 25명의 작목이 있어 선전관청의 관원들을 주축으로 제작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제2첩에서 7첩에 걸쳐 금관조복을 입은 문무백관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국왕과 국체를 상징하는 의장이 총동원되는 진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평행사선구도로 표현된 궁궐은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였고, 행사 장면과 조화되어 위엄 있고 화려한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천진난만 분청사기粉靑沙器

분청사기는 회청색 그릇에 다양한 무늬를 장식한 도자기를 가리켜 부르는 용어로서, 고려 시대에 강진·부안에서 청자를 만들던 장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표현이 특징이다. 분청사기는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어 15세기 중반 전성기를 맞았고, 이후 백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며 사라진다.

백토白土를 바르는 기술이나 무늬를 새기는 방법에 따라 분청사기의 종류를 상감·인화·박지·조화·철화·귀얄·덤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왕실과 민가에서 두루 사용했던 도자기 이기에 형식, 무늬, 장식기법 등은 지방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분청사기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도자 양식이며, 한국적인 미감美感을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083
분청사기 모란무늬 향아리
粉靑沙器剝地唐草文壺

조선 15세기
높이 27.0 | 입지름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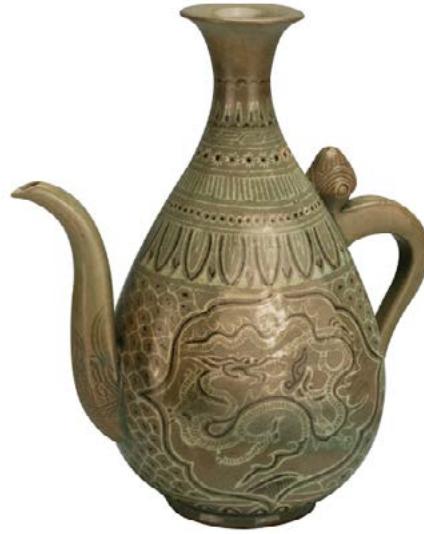
주둥이가 벌어지고 짧은 목에 어깨 부분이 팽창하다가 굴곡 없이 서서히 좁아져 내려가는 형태의 향아리이다. 표면 전체에 백토를 바른 후, 가로선을 돌려 세 개의 문양대로 구획했고, 연판문·모란꽃을 새겨 넣고 나머지 배경은 긁어내는 박지剝地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회녹색의 태토와 연한 미색의 분장색이 잘 어울린다.



084
분청사기 모란무늬 장군
粉靑沙器象嵌牡丹文缶

조선 15세기
길이 28.2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기형에 모란꽃과 격자문의 조화로운 구도는 세련된 미감을 보여준다. 굽다리는 별도로 제작하여 붙였다. 몸통은 백토 분장과 회녹색 태도가 대비를 이뤄 문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모란꽃 부분을 넓게 면상감한 기법이 장군에 사용된 점 등이 희귀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다.



086
분청사기 파도용무늬 주전자
粉靑沙器象嵌波瀾龍文注子

조선 15세기
높이 30.4

능화창 안에 용이 온몸을 S자로 휘어 감고 있으며, 바깥쪽엔 파도와 연꽃, 국화꽃 등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문양은 고려 후기 청자에서 등장하는 것이며, 주전자 형태는 조선 시대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085
분청사기 모란무늬 병
粉靑沙器象嵌牡丹文瓶

조선 15세기
높이 34.5

주둥이가 나팔처럼 벌어져 있으며 짧고 가는 목에 몸통이 통통하게 벌어져 병 하부가 넉넉히 팽창되었다가 다시 좁게 마무리 되는 형태의 아담한 병이다. 질은 담녹색의 태토 전체에 빙얼이 퍼져있다. 몸체에 모란과 대담하고 간략한 닝쿨무늬, 하단에는 연판문, 상단에는 연주문과 세로선이 상감기법으로 새겨져 있는 병이다.



087
분청사기 당초무늬 장군
粉靑沙器鐵畫唐草文缶

조선 15세기
길이 34.5

거친 솜씨로 물레자국이 나게 제작된 몸통은 가로로 긴 형태이며, 타원형의 굽과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주둥이를 한 장군이다. 몸통 전체를 귀얄로 두껍게 백토를 바른 후, 철화 안료로 대범한 조형의 당초무늬를 그려 넣었다. 도공이 무심히 그려 넣은 간략한 당초무늬는 현대의 세련된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 예술성이 뛰어난 수작이다.



088
분청사기 물고기무늬 장군
粉靑沙器鐵畫魚文缶

조선 15세기
길이 19.7

작고 아담한 크기의 장군이다. 분청사기의 거친 흰 배경에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호방하게 그려진 물고기가 매우 인상적이다. 추상적으로 표현한 비늘무늬를 주요 문양으로 시대적 양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넝쿨과 파초무늬가 곁들여 있다.



089
백자청화 사자모양 병
白磁靑畫獅子形酒瓶

조선 19세기
높이 26.0

표주박 형태의 병을 등에 업고 앞발을 다소곳이 모은 사자모양 술병이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는 목에 방울을 달고, 큰 귀와 코, 부릅뜬 눈을 가지고 있다. 물구멍은 입과 술병 위 두 군데가 있다. 분원 말기의 기형으로, 형태도 의젓하고 청화문양과 조각장식도 솜씨가 뛰어나다.

왕실 백자의 고향, 광주 분원分院

유교의 이상사회를 지향한 조선왕조는 도자 문화에서도 검약과 실용을 강조하였다. 맑고 티 없는 백색을 띠는 백자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아 실용적이기도 했다. 이는 조선 왕실이 표방한 유교 이념에도 부합하는 새 시대의 그릇이었다. 세종은 왕실 그릇으로 백자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왕실의 관심 아래 백자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였다.

경기도는 조선백자의 고향이다. 조선 초기부터 광주에 설치된 사용원의 분원에서 백자를 생산하였는데, 이른바 관요官窯는 15세기 후반부터 민영화되는 1884년까지 왕실 백자를 생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분원 백자는 유교적인 덕목을 구현하려는 왕실의 의도에 따라 기종·문양·장식 등이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격조를 중시하는 특유의 미감을 지니고 있다.



090
백자 용무늬 항아리
白磁鐵畫龍文壺

조선 17세기
높이 29.0 | 입지름 15.5

등근 몸통에 곧게 뻗은 주둥이와 좁은 굽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달항아리의 기형이다. 간략한 구름을 배경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용을 철화로 거칠고 힘 있게 표현하였다. 뒷머리를 앞으로 끌어 올리고 동그란 눈을 부릅뜬 채 입에서 불을 내뿜고 있는 용의 모습이 해학적이다. 17세기 후반 광주 신대리 가마에서 제작되어 왕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091
백자 향아리
白磁有蓋壺

조선 15세기
높이 31.6

보주형의 꼭지와 날렵한 모양의 뚜껑을 갖춘 향아리이다. 어깨가 당당히 벌어지면서 곡선을 이루었고, 바닥 부분으로 좁아드는 형태이다. 유태가 정선되고 밝은 회백색으로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러워 갑번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약이 전면에 곱게 시유된 가운데 굽은 정성스럽게 깎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어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이런 형태의 향아리는 15세기 부터 주로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광주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093
백자 향아리
白磁壺

조선 17세기
높이 31.4 | 입지름 13.7

달항아리처럼 각이 진 주둥이와 둥근 어깨에서 아래로 흐르는 선이 아름답다. 풍만한 형태와 부드러운 유색을 지녀 백자 향아리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위아래를 따로 제작하여 접합한 흔적이 안쪽 면에 남아있고, 바닥에는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이 있다. 18세기 전반 광주 금사리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092
백자 모란당초무늬 병
白磁象嵌牡丹唐草文瓶

조선 15세기
높이 29.7

조선 전기의 순백자 병과 같이 나팔 모양의 주둥이에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안정감 있는 몸통을 가진 병이다. 몸통 중앙에 당초무늬를 배치하고, 윗부분에는 간략하게 조형화된 모란당초무늬를 배치하였다. 흑상감이 매우 가늘게 표현되었고, 붉은 빛이 돈다. 태도는 경질이고, 빙얼 없이 얇고 투명한 백자유가 시유되었다.



094
백자 코끼리모양 제기
白磁鐵畫象樽祭器

조선 17세기
19.7×17.5×30.5

코끼리 모양으로 만든 제례 의식용 백자로, 술을 담은 그릇이다. 원통형으로 몸통을 만든 후, 머리와 귀·긴 코·네 개의 다리를 달고 얼굴 부분을 칠채로 장식하였다. 몸통 윗부분의 사각 구멍에 제물을 담을 수 있게 하였다. 표면에 짙은 담 녹색 빛을 띠는 두터운 유약을 발라 푸르스름한 회백색을 띠고 있다.



095
백자 매화와 대나무무늬 각병
白磁靑梅竹文角瓶

조선 18세기
높이 33.9

표면을 팔각으로 깎은 각병이다. 목이 길고 몸통이 팽팽하게 내려오는 것은 18세기 후반의 특징이다. 몸통 아래에 청화로 선을 한줄 긋고, 그 위 양면에 매화와 나비·대나무를 회화적으로 표현했는데, 필력이 있는 화원의 솜씨이다. 연한 푸른빛이 도는 두터운 유약을 발랐다. 광주 분원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097
백자 매화와 대나무무늬 편병
白磁辰砂梅竹兩耳扁瓶

조선 19세기
높이 17.1

병 전체를 붉은 색의 구리 안료로 칠한 보기 드문 작품이다. 몸통에는 매화와 대나무를 양각으로 장식하였고, 양쪽으로 동물 모양 손잡이를 붙였다. 뛰어난 조형성이 돋보인다. 분원 말기에 제작된 동화백자 편병으로 매우 희귀하며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096
백자 산수무늬 사각병
白磁靑華山水文四角瓶

조선 19세기
높이 14.0

몸통과 주둥이가 모두 사각형인 병이다. 양 옆에는 설치류로 보이는 동물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몸통에는 청화 안료를 사용하여 소나무·정자·새·배 등을 소재로 하는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린 듯하며, 주둥이에는 박쥐·구름 등의 길상적인 문양이 있다. 이런 형태의 각병에 동물 모양의 손잡이를 사용한 예는 조선 말기 분원에서 생산된 백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098
백자 모란무늬 주전자
白磁陽刻牡丹文注子

조선 19세기
높이 18.0

풍만한 몸통에 넝쿨을 꼬아 만든 모양의 두꺼운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이다. 몸통과 뚜껑에 모란꽃무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뚜껑 꼭지는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와 잘 어울려 독특한 조형미를 풍긴다. 푸른 기가 도는 설백색의 유색에 잡티가 없이 깨끗하다. 분원에서 만들어진 감기(匣器)로 우수한 작품이다.



099
백자 모란무늬 합
白磁靑畫牧丹文盒

조선 19세기
13.1×15.6

금속기형을 모방한 모양의 합이다. 모란꽃과 떡살 무늬로 장식하였다. 푸른 기를 머금은 설백색의 유색을 띄며 매우 경질이다.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며, 조선 후기 도자와 민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한다. 19세기 광주 분원리에서 제작되었다.



100
백자 풀무늬 향아리
白磁鐵畫草文壺

조선 17세기
20.6×24.5

질은 회백색 유약이 얇게 입혀져 있고, 표면에 잡물이 약간 보이며 전체적으로 빙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백자를 만들기 힘들었던 나라의 상황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럼에도 철화 안료로 간략하게 그려진 질은 적갈색의 풀무늬는 태토의 색과 잘 어우러져 조선 중기 백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102
휴대용 팔도지도
東國圖籍

조선 후기
11.4×5.5

접고 펼치기 쉽게 만든 팔도지도이다. 역·진·鎭·보·保·산·성·호구·전·결·속·오·군 등 군사 관련 내용과 간략한 내력 등을 각도별로 소개하였다. 간편하게 휴대할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경기의 경우 경역京驛 2곳을 포함하여 8역, 5진, 7보, 6산성, 129,892호의 인구, 101,253결의 논과 밭, 22,122명의 속오군, 강화·양주·죽산·수원·남양·장단의 수영水營에 속한 군사와 선박 등이 기록되어 있다.



103
중국의 명산을 그린 오악도
五嶽圖

조선 18세기
48.7×40.5

조영복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 함께 갔던 도화서 화원이 그린 그림이다. 오악은 중국의 이름난 5대산으로 송산, 태산, 화산, 형산, 향산이다. 오악을 비롯하여 35개소의 중국의 명승을 그렸다.



104
출장자가 마필과 숙식을 제공받도록 하는 문서
草料

조선 1844년
17.5×26.4

관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경유하는 각 관과 역에서 음식, 하인, 말, 말먹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조에서 발급한 증서다. 이 초료는 헌종 10년(1884)에 발급한 것으로, 수원 출장이 끝나면 경기감영에 반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105
은으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새긴 목즙통
銀入絲松竹文墨汁筒

조선
6.1×3.0



106
안경집과 안경
鮫魚皮眼鏡集/玳瑁眼鏡

조선 19세기
6.3×18.3



107
휴대용 거울
鏡

조선
지름 5.7



108
해시계
仰釜日晷

조선 1873년
6.4×4.2

휴대용으로 방위를 가리키는 윤도輪圖가 함께 있다. 밑면에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는데, 절기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계절에 맞게 기울기를 조절하여 시각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뒷면에 고종 10년(1873) 가을 강건姜健(1843-1909)이 제작했다고 적혀 있다.

팔도의 물산 집합소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 실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 등으로 전국적으로 장시가 활성화되었다. 시장에서는 각종 상품이 거래되었는데, 18세기 중반에는 경기지역에서도 100여 개에

달하는 장시가 개설되었다. 경기도 광주의 사평장·송과장, 안성의 읍내장, 교하의 공릉장 등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장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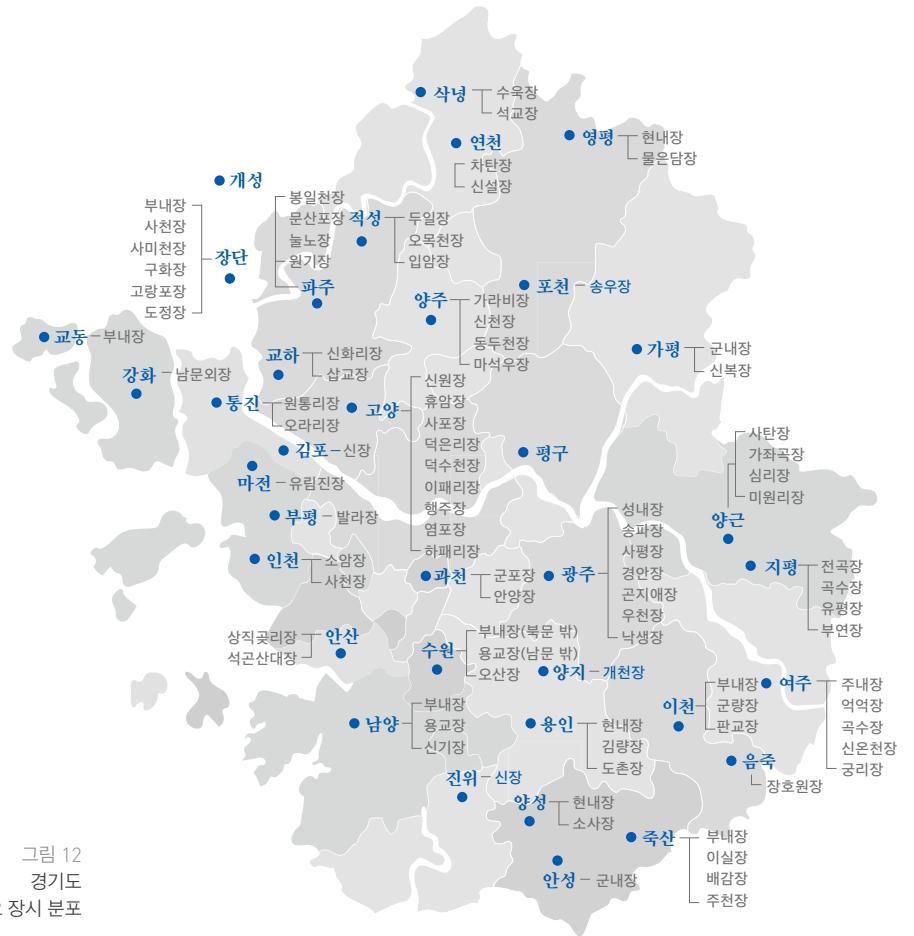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
주요 장시 분포



109
담뱃대
煙竹

조선 19세기
42.0



112
노리개
佩飾

조선
40.0 | 35.5 | 28.0



110
명기판
唐只版

조선
81.7×9.7×1.3



113
은장도
銀粧刀

조선 18세기
2.2×14.2×1.9



111
노리개
三作佩飾

조선 후기



114
수저집
匙箸筒

조선 19세기
38.3×10.0



115
향주머니
香囊

조선 20세기 초
8.7×11.6



118
탕건
宕巾

조선
14.5×18.0



116
세조대
細條帶

조선 19세기
402.5



119
갓함
笠函

대한제국
지름 36.0



117
흑립
黑笠

조선
16.5×41.0



120
갓
笠

대한제국
지름 33.5



121
상평통보
常平通寶

조선 19세기
지름 3.0

속중 때부터 제작되어 유통된 화폐다. 조선 후기의 상업 발전과 함께 널리 유통되었다. '경기감영'에서 제작되었다고 쓰인 것도 있다.



123
필통
華角筆筒

조선 후기
높이 13.3 | 지름 13.5



122
당혜
唐鞋

조선
6.5×24.0



124
붓과 필통
筆筒

일제강점기
25.4×4.6×1.9



125
담배함
煙草函

조선 후기
10.2×14.0×9.6



126
저울
秤

조선 19세기
길이 59.4

저울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다.

긴 막대에 눈금을 그려 놓고 한쪽은 물건을 매달 수 있게 하여 저울 추로 무게를 달았다.

· 경기 목가구

경기 지역의 목가구는 다른 지역보다 높이가 높고, 내부에 많은 양의 물건을 넣을 수 있어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궁중문화의 영향이 가구의 형태와 제작기법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조형성도 갖추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장과 농이 특히 발달했는데,

지역명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정도로 개성 강한 목가구들이 전해진다. 경기삼층장, 경기약장, 강화반단이, 개성반단이, 남한산성반단이 등이 대표적이다.



127
경기이층장
京畿二層藏

조선 18세기
45.3×87.5×128.0

옷 등을 수납하는 가구로 중상류 가정의 대표적인 안방가구다. 기둥과 골재는 참죽나무, 천판과 옆널, 뒷판은 소나무로 만들었다. 전체적인 형태와 짜임, 앞면의 원형 경첩을 비롯한 금구장식을 고급스럽게 꾸민 데서 경기이층장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128
경기약장
京畿藥櫥

조선 19세기
44.5×97.0×1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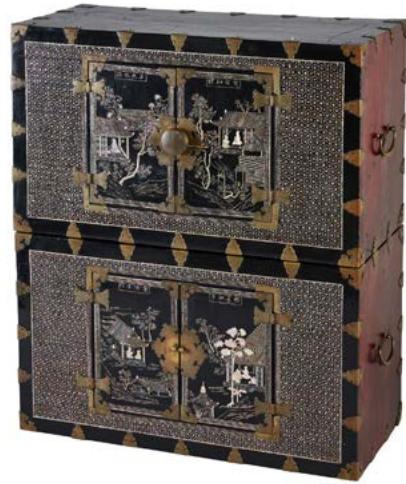
약재를 분류하여 넣어두는 여러 개의 서랍이 달린 나무 장이다. 오동나무와 느티나무로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 경기도 지역에서 제작된 경기약장의 전형적인 양식을 잘 보여주는 수준 높은 목가구로 평가받는다.



129
개성반달이
開城櫃

20세기 전반
45.5×103.2×106.0

호리병형 경첩 7개가 붙어 있어 '경기7첩반달이'라고도 부른다. 불로초와 불로초를 입에 문학, 꽃과 나비형 거멸잡이 등 화려한 분위의 백동장식이 붙어 있다. 기증자 어머니의 혼수품이다.



130
이충나전칠기장
二層螺鈿漆器藏

조선
35.3×77.2×90.7

이충으로 된 자개장으로 네 개의 문짝에 오륜행실도 열녀편의 고사를 자개로 조각했다. '여종이 예절을 알다女宗知禮', '복강이 전처 아들을 사랑하다穆姜撫子', '송나라 여인이 남편을 버리지 않다宋女不改', '왕씨에게 제비도 감동하다王氏感燕'의 4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다.

11. 경기인을 만나다

경기인京畿人の 초상肖像

초상화는 특정한 인물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옛 조상들에게 초상화는 단지 기록이나 예술 작품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제작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정성을 다했으며, 완성 후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여겼다. 초상화는 다른 그림과 비교하여 실제와 똑같이 표현해야 하는 ‘사실성’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표정은 물론, 흉터, 점, 수염 한 올까지 상세하게 그렸다. 또한 초상화는 걸모습뿐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이나 인품 등 정신적인 면까지 담아내야 했다.

조선시대 문화의 중심에는 경기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경기 사대부가 있었다. 그들은 조선을 유교적 가치가 실현되는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였고,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중요한 덕목이었다. 이를 위해 경기 곳곳에는 조상을 기리는 사묘祠廟와 영당影堂, 서원書院이 지어졌으며, 이곳에서 조상을 기리기 위해 초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상功臣像 등을 문중에서 보존하여 대대로 전하는 경우도 있다.



131
이의현 초상
李宜顯肖像

조선 1732년
169.2×98.0

이의현(1669-1745)은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내고 형조·이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당시 세계의 문화거리였던 북경 유리창을 조선에 처음 소개하기도 했다. 아버지 이세백李世白과 함께 부자가 정승 반열에 올랐다.

이의현 초상은 시복본을 입은 전신상으로, 2.5m에 이르는 대형 초상화이다. 그림 우측 상단에 64세에 그린 것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1732년(영조 8)이다. 관리의 근무복인 시복을 입은 모습이다. 시복에 두른 서대는 정1품의 관직에 있을 때임을 나타낸다. 높은 사모, 호피반침, 돛자리, 명암 표현 등은 18세기 초상화의 양식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132
이재학 초상
李在學肖像

조선 19세기
76.5×57.2

경기관찰사를 지낸 이재학(1745-1806)의 초상화이다. 관복에 쓰는 검은색 모자에 시복時服을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반신상이다. 허리에는 보상화무늬나 당초무늬를 새긴 황금빛 허리띠인 삼금대鍬金帶를 두르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단령을 입은 초상화와 같아 50세에 제작된 초상을 토대로 후에 이모한 것으로 보인다.



133
이둔상 초상
李敦相肖像肖像函

조선 19세기
79.5×50.3

이둔상(1815-1884)의 초상화이다. 글씨를 잘 써 경복궁 근정문 상량문의 서사관書寫官을 지냈고, 벼슬은 공조판서·사헌부 대사헌·한성부판윤 등에 이르렀다. 단령본, 금관조복본, 유지초본, 상초목화본 등이 함께 전해져 초상화의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금관조복을 입고 있는 반신상으로, 일부 초상화에서만 발견되는 드문 형식이다. 안면 묘사는 적갈색 선으로 외곽을 그리고 색을 칠했으며, 의습 처리는 선염기를 약간 결들여 간결하면서 주름진 굴곡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19세기 후반 사대부 초상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예를 다하다: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出土服飾

조선시대 복식은 사대부의 가치관과 규범을 고스란히 담아 단아한 선과 정교한 바늘땀으로 승화시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의복의 무늬에 담아 염원과 소망을 기원하였다. 복식은 우리 몸과 밀접한 주요 생활문화이며 역사적 산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하는 특성 때문에 보존하기가 어렵다.

복식은 사대부의 무덤을 옹기하는 과정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되곤 한다. 경기도에는 여러 문종의 묘역이 자리 잡고 있어, 그곳에서 출토되는 복식의 양 또한 매우 많다. 옛사람들은 대부분 평상시 입던 옷들과 함께 묻혔다. 무덤에서 발견된 복식들은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 자료일 뿐 아니라 상례喪禮와 장례葬禮 풍습까지 알려주는 연구 자료다.



134
단령
團領

조선 18세기
길이 130.6 | 화장 116.3

의원군 이혁의 무덤에서 출토된 단령이다. 단령은 문무백관의 업무복으로 검은색 단령에 홍배가 있는 것은 상복常服이라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업무시 착용하는 것이며, 홍색 단령에 홍배가 없는 것은 시복時服이라 하여 일상 업무시 착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의원군의 단령은 홍배가 있는 검은색 단령이었으나 무덤의 환경상 색을 잃어 갈변된 상태이다. 가슴과 등에는 금실로 수놓은 '학용배'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당상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의원군 이혁은 인조의 3남인 인평대군의 손자이다.



135
조복
朝服

조선 17세기
길이 107.0 | 회장 125.5

재현품

이 조복은 출토유물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것이다. 조복은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4품 이상의 관리가 착용하는 의례용 예복이다. 조복의 구성은 의(상의), 상(치마), 폐슬(앞 장식), 후수(뒤 장식), 대대(허리띠), 금관(금색모자), 품대(품계를 나타내는 허리띠), 패옥(옥을 길게 꿰 장식), 홀(손을 모아 쥐는 긴 막대기)로 구성되어 있다. 17세기 권우 묘에서 출토된 조복은 의, 상, 폐슬, 후수, 대대가 있는데, 출토 유물로는 현재까지 두 번째로 이른 시기의 것이며, 특히 폐슬에는 10개의 보배무늬가 후수에는 2쌍의 쇠백로(鸞)와 구름이 수놓아져 있는데, 조복의 폐슬에 수가 놓인 것은 유일한 자료로 복식사적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36
심의
深衣

조선 19세기
길이 130

심의는 유학자의 상징적인 옷으로 상의와 여러 쪽을 이은 치마가 이어져 있으며 가장자리에 검은 선이 둘러져 있다. 기의 모양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네모형을 방령(方領) 심의, 직선으로 곧게 내려온 형태를 직령(直領) 심이라 한다. 직령은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조선 중·후기에 널리 사용하였고, 방령은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여 주로 남인계 학자들이 착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료는 무늬 없는 소박한 직물인 명주, 모시 등이 사용되었다.

이 방령심의는 면직물로 치마 12폭을 이어 상의와 결합된 형태로 크기가 작고, 고름 없이 매듭단추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 간소화 된 특징이 확인된다.

· **흉배의 시작과 변화**

조선의 흉배 제도는 1454년(단종 2) 12월에 종친들에게 흉배 단령을 입게 하면서 시작되었고, 성종 때 편찬한 『경국대전』에서 정식으로 범제화하였다. 제도의 내용은 명나라 제도에 근거했는데, 명나라의 3품에 해당하는 것을 조선에서는 1품 용 흉배로 사용하는 ‘이등체강二等遞降’ 원칙을 따랐다. 명나라는 1-9품이 모두 흉배를 달았지만, 조선은 초기에 3품까지만 흉배를 달게 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1품에서 3품까지 문무백관의 의례용 집부복은 사紗·라羅·능綾·단緞과 같은 좋은 옷감을 사용하고, 거기에 문관은 새, 무관은 네발 달린 짐승의 무늬가 있는 흉배를 달게 하였다. 문관의 1품은 공작, 2품은 기러기, 3품은 은꿩 흉배를 달았고, 무관은 1품과 2품에는 호랑이와 표범을 나란히 표현한 호표흉배, 3품은 곰 흉배를 달아 품계를 구분하였다. 곰 흉배는 아직 그림이나 실물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흉배 종류는 영조·정조 대를 거치며 점차 단순해졌다.

06월 01일 · 양성지 1415-1472의 건의로 흉배 부착
“흉배를 입어서 상하차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종실록』 12월 01일 · 2품 이상 72명에게 흉배단령 착용 처음 시도
단종 2년 (1454년)

12월 10일 · 문무당상관 관복에 흉배 문장을 정함
문관-1품 : 공작孔雀, 2품 : 운안雲雁 3품 백한白鵝
무관-1·2품 : 호표虎豹, 3품 : 용표龍豹

『영조실록』 05월 26일 · 문신 당상관 학鶴, 당하관 백한 /
영조 21년(1745년) 무신 당하관 호표·웅비熊羆

『상서기문』 · 당상관 쌍백학, 당하관 독학
정조 18년(1794년)

『연경제전집』 · 당상관 쌍호, 당하관 단호
1840년 추정

1454-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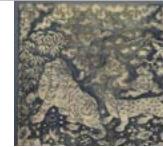
문관 1품 공작



문관 2품 운안



문관 3품 백한



무관 1.2품 호표

1600-1700



문관 당상관 운학



문관 당하관 백한



무관 종2-4품 호랑이



무관 종2품 사자

1800년 이후



문관 당상관 쌍학



문관 당하관 단학



무관 당상관 쌍호



무관 당하관 단호

· **눈물로 삼전도비를 쓴 충신, 이경석李景奭의 궤장几杖**

백헌白軒 이경석(1595-1671)은 병자호란 때 실리를 추구하는 정신과 충정으로 국란을 타개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명재상이다. 현종顯宗이 영증추부사 이경석에게 내린 <의자와 지팡이几杖>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70세가 넘는 원로대신이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왕이 신하에게 의자와 지팡이 또는 가마 등을 하사하던 전례에 따라 1668년 11월 27일 하사 의례가 이루어졌다. 의자는 접이식으로 필요할 때에는 펴 수 있으며, 앉는 곳은 노끈을 꼬아 X자형으로 엮었다. 등을 기대는 부분은 해나무槐木이며, 등받이 표면은 자작나무 껍질로 싸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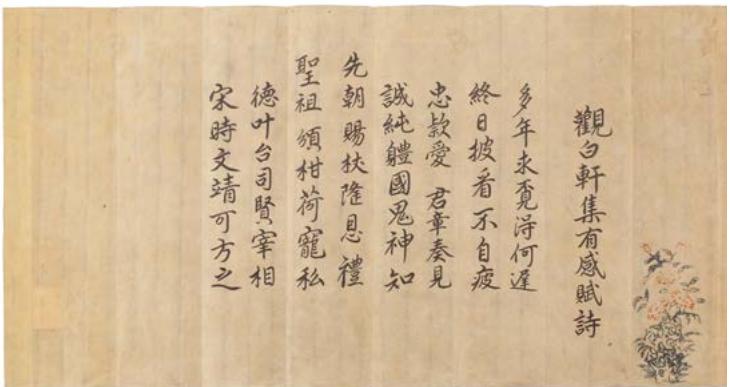
지팡이는 모두 5점으로 땅에 닿는 부분인 범금範金은 사각형 철기로 되어 있다. 특히 새 머리 모양 지팡이의 머리 부분은 오리를 조각해 끼웠으며, 자루 끝에는 작은 살포가 달려 있는데, 살포는 논이 물꼬를 터줄 때 사용하는 실용적인 농기구이면서 그 상황을 결정할만한 권위를 지녔다는 상징성을 갖는 농구이기도 하다. 임금이 궤장을 내릴 때는 관원들이 집을 찾아가서 의식을 갖추고 큰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 잔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나중에 기념으로 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37
현종에게 하사받은 의자와 지팡이
几杖

조선 1668년
의자 55.0×72.5×91.0
지팡이 150.0

보물



138
이경석의 문집을 읽은 숙종의 감회
肅宗御筆七言詩

조선 17-18세기
58.3×278.8

보물

숙종이 병자호란 때의 명신인 백헌 이경석의 시문을 모은 『백헌집』을 살펴본 뒤 나라에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에 감동하며 느낀 바를 칠언율시로 쓴 어필이다. 원나라 조맹부의 송설체를 기본으로 유연하고 단아한 필치를 보여준다. 어필을 보관하기 위해 참죽 나무로 필갑을 만들어 뚜껑에 '숙종성제보 목肅宗聖製寶墨'이라고 전각하여 보관하였다.



III 선사·고대실



III. 선사·고대실

1. 경기 땅에 사람이 등장하다	136
인류의 출현과 도구 사용: 구석기시대	
2. 선사시대의 생활	142
농경과 정착 생활: 신석기시대	
권력과 계급: 청동기시대	
선사인의 발명품, 토기	
3. 권력의 등장, 복잡해진 사회	152
새로운 역사의 시작: 철기시대	
4. 마한을 넘어 백제를 세우다	156
마한馬韓과 백제百濟	
전쟁과 교류	
고구려의 한강 진출	
5. 통일 국가, 신라	166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삼국통일	
신라의 지방지배, 9주州5소경小京	
신라 말기의 혼란과 후삼국後三國	

III. 선사·고대실

1. 경기 땅에 사람이 등장하다

경기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끊임 없이 사람이 모여든 곳이다. 구석기인들은 이 땅에서 석기를 가지고 살았고, 신석기 인들은 하천 주변에 정착하여 도기를 만들었다. 청동기인들은 도구를 발달시켰는데, 농업생산물이 많아지면서 권력이 생겨 여러 집단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역사의 여명이 짧르게 되었다.

경기지역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수십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다.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흔적은 한탄강, 임진강, 한강 등의 큰 강과 그 지류에서 발견되는데,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식량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았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연천 전곡리, 남양주 호평동 유적 등이 있다.



139
주먹도끼
握斧

구석기시대
15.3
파주 가월리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거의 전체 면을 공들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 인지능력의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다. 사냥, 골수 채취, 나무나 가죽의 가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림 180
경기도의 고대

인류의 출현과 도구 사용: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로 만든 도구인 편석기를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감을 다듬어서 주먹도끼, 찌개 등의 대형석기를 만들었으나 나중에는 점차 가공하기 좋은 돌감을 골라내어 스페찌르개, 돌날 등의 작고 날카로운 석기를 많이 만들었다. 주먹도끼는 사냥하거나 동물 뼈를 부수고 골수를 채취할 때나, 그리고 나무, 가죽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먹도끼는 1978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최초였다.



140
스베찌르개
有莖尖頭器

구석기시대
3.4 | 9.1
용인 평창리

돌날이나 긴 격지를 이용하여 스페를 만들고, 날 부분을 찌르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가공한 석기이다. 석기의 아랫부분을 가공하여 나무 등과 결합해 사용한다.

- ① 연천 전곡리
- ② 파주 주월리·가월리
- ③ 의정부 민락동
- ④ 남양주 호평동
- ⑤ 용인 평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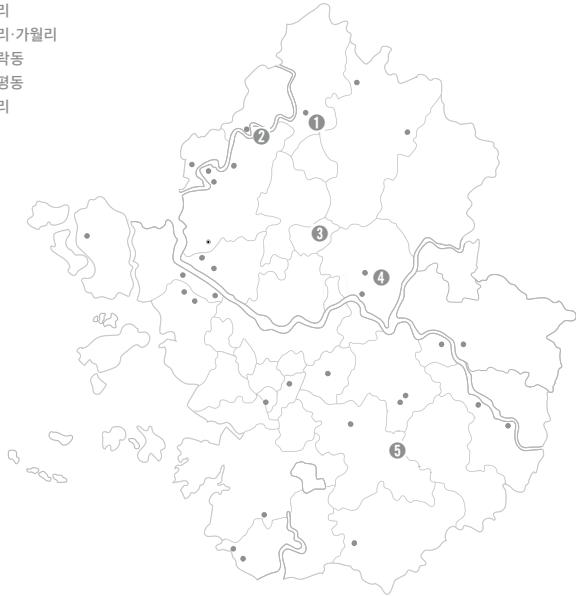


그림 13
경기도
주요 구석기
유적 분포



141
찌개
甆

구석기시대
10.0 | 13.3
용인 평창리

석기의 양쪽 가장자리에 날이 만들어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찌개 중심의 석기문화는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이어진다.



142
가로날도끼
手斧

구석기시대
12.8 | 15.5
파주 가월리

주먹도끼와 비슷하지만 위쪽 끝부분에
길쭉한 가로 방향의 자르는 날이 달려
있다.



144
격지
剝片

구석기시대
7.7 | 10.4
연천 전국리

몸돌이나 대형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떼어낸 돌 조각편이다.



143
몸돌
石核

구석기시대
11.9
연천 강내리

격지를 떼어낸 원래의 몸돌로 만든 구석기
시대의 석기이다.



145
망치돌
石鎚

구석기시대
6.0
용인 평창리

격지나 다양한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몸돌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는 석기다.

2. 선사시대의 생활

이동 생활을 하던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신석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어 살며 초보적인 수준의 발농사를 시작했다.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이 더욱 발달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규모가 큰 마을과 집단이 많이 생겼으며, 계급을 바탕으로 권력을 가진 개인이 등장하였다. 그 흔적은 고인돌, 방어 시설, 청동 무기와 의기(儀器) 등에서 잘 드러난다.

농경과 정착 생활: 신석기시대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자 동물과 식물이 번성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한곳에 머물며 마을을 형성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다. 경기지역에서는 파주 대능리,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 등 20기 내외의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는 대규모 마을 유적이 많이 확인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돌을 갈아 날을 세운 간석기를 썼으며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고 개, 돼지, 소 등도 가축으로 길렀다. 조와 기장 등 잡곡을 재배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발농사가 시작되었고, 토기를 구워 만들어 생산한 곡물을 저장했다. 간석기를 만들어 썼다는 의미에서 신석기시대라고 부른다.

- ① 연천 삼거리
- ② 파주 대능리
- ③ 시흥 농곡동
- ④ 시흥 오이도
- ⑤ 안산 신길동
- ⑥ 화성 석교리
- ⑦ 용인 농서리
- ⑧ 인천 중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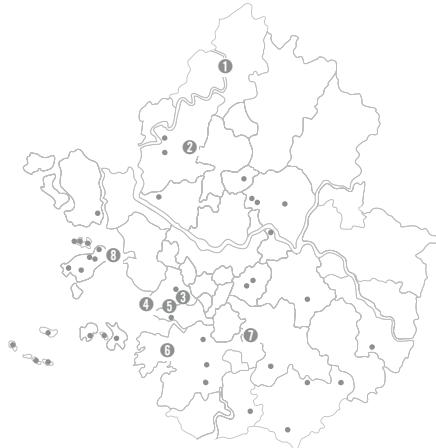


그림 14
경기도 주요
신석기
유적 분포



146
갈돌과 갈판
石棒石板

신석기시대
25.0×35.0
연천군 삼거리

곡물이나 야생 열매를 부수어서 가는데 사용하던 석기이다.



147
숫돌
砥石

신석기시대
10.0
연천군 삼거리

칼이나 낫 또는 도끼 따위를 갈아서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이다.



148
그물추
漁網錘

신석기시대
3.7 | 5.3
연천군 삼거리

그물 끝에 매달아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다.



149
흑요석 조각
黑曜石片

신석기시대
1.5
연천군 삼거리

평면 형태가 삼각형에 가까운 흑요석 조각이다. 여러 면에 뿔 자국이 확인되는데 흑요석을 활용한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로 추정된다.

권력과 계급: 청동기시대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기준으로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농경과 간석기가 보편화되고 민무늬토기無文土器가 등장하였고, 사람들은 낮은 구릉이나 평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며, 죽은 사람은 고인돌支石墓, 돌널무덤石棺墓, 독무덤甕棺墓 등에 묻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강가의 충적지와 산지 또는 구릉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처음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큰 집을 많이 지었지만, 나중에는 원형·사각형의 작은 집을 많이 만들었다. 마을 주변에는 생산시설, 저장용 건물, 광장, 나무울타리, 무덤 등이 위치한다.

청동으로는 주로 검劍·창鎗·도끼斧와 같은 무기류, 거울·방울처럼 의례에 사용한 의기류儀器類, 끌·조각칼·도끼 등의 공구류를 만들었는데, 이는 지배하는 세력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관계가 생겼음을 나타낸다.



150
연옥 장신구
軟玉製裝身具

신석기시대
파주 주월리

열은 황갈색의 연옥제 장신구로 형태상 관옥형, 방형, 환형 등이다. 측면에 동물 머리모양을 형상화한 고리형 장신구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홍산문화紅山文化的 용 모양의 옥반지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 ① 파주 당하리
- ② 안성 만정리
- ③ 안성 반제리
- ④ 화성 천천리
- ⑤ 화성 동학산
- ⑥ 부천 고강동
- ⑦ 가평 대성리
- ⑧ 연천 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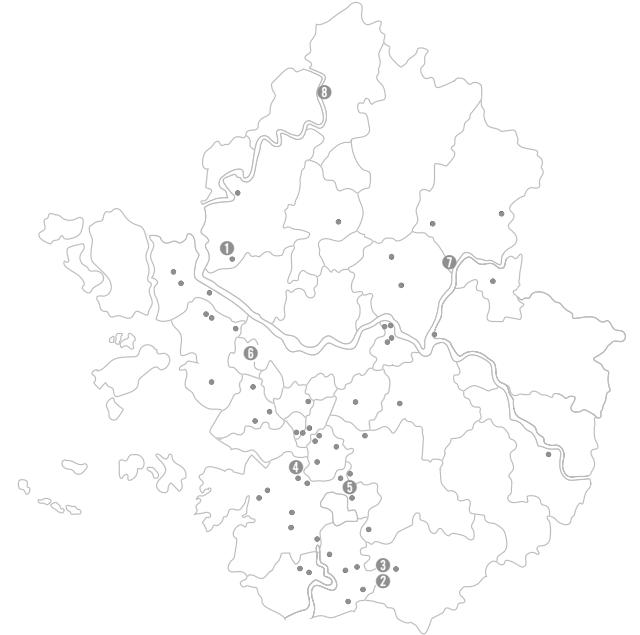


그림 15
경기도 주요
청동기
유적 분포



151
간돌검
磨製石劍

청동기시대
16.6
연천 삼거리

돌을 갈아 칼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 중 하나이다. 실생활 용도 뿐 아니라 제사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에서 출토되기도 한다.



153
바퀴날도끼
環狀石斧

청동기시대
14.0

가운데 구멍을 뚫어 나무 막대 등을 끼워 사용한 무기다. 그 형태를 따라 달도끼라고 불리기도 한다.



154
돌화살촉
有莖式石鏃

청동기시대
7.5-7.9



152
돌창
石槍

청동기시대
10.0-19.4



155
반달돌칼
半月形石刀

청동기
18.8
연천 삼거리

반달 모양의 돌칼이다. 날은 양면을 갈아 만들었다. 사용하기 위한 끈을 묶는 구멍 두 개가 가운데에 뚫려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수확 도구이다.

선사인의 발명품, 토기

토기는 흙으로 모양을 빚은 뒤 불에 구워 만든 그릇이다. 토기 발명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먹거리를 조리하고 저장하며 운반하는 활동, 농사,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토기에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를 새긴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했다. 점과 선으로 삼각 무늬, 사각 무늬, 격자 무늬, 방사선 무늬 등을 새겼다. 한편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표면에 장식을 거의 하지 않은 민무늬토기를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기능을 더욱 세분하여 매장 의례에 쓰는 붉은간토기나 가지무늬토기 등을 만들기도 했다.



157
붉은간토기
赤色磨研土器

청동기시대
높이 12.2 | 11.4

토기의 겉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 문질러 구워 만든 토기다. 무덤에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156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

신석기시대
높이 36.8
파주 대능리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다. 이른 시기에는 토기 표면 전체에 무늬를 새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늬가 새겨지는 부위가 줄어들었다. 서파주 대능리 출토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 전기 토기로 입구 부분에 짧은빗금무늬, 몸체 부분에 물고기뼈무늬, 바닥 부분에 방사선 무늬가 모두 새겨져 있다.



158
가지무늬토기
彩文土器

청동기시대
높이 12.5



159
겹아가리항아리
二重口緣土器壺

청동기시대
높이 47.7
연천 삼거리

이중으로 만든 아가리 부분에 단사선문을 새긴 항아리다. 청동기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토기 중 하나로, 가락동식 토기라고도 부른다.



161
깊은바리토기
深鉢形土器

청동기시대
높이 14.0 | 입지름 15.5
연천 삼거리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토기이다. 겉면에는 토기를 만들 때 생긴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160
겹아가리토기
二重口緣土器

청동기시대
높이 30.5
연천 삼거리

입구 부분에 이중으로 아가리를 만들고, 폭이 넓은 단사선문을 새긴 토기다.



162
손잡이 달린 토기
把手附土器

청동기시대
높이 15.0 | 입지름 10.0
연천 삼거리

3. 권력의 등장, 복잡해진 사회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민무늬토기와 간석기를 쓰면서 청동기를 만들었다. 기능에 따라 전문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정형화된 무덤을 만들었으며, 농경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전 시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잡한 사회를 형성하였다. 집단이 나뉘고,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는 권력이 발생하면서 개인 및 집단 사이에 갈등도 생겨났다. 기원전 300년경에는 중국 연나라 방면으로부터 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역사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철기시대

청동기시대가 끝나갈 무렵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 철기가 보급되었지만, 오히려 청동기문화가 정점을 찍은 이 시기를 ‘초기 철기시대’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비교적 높은 곳에서 살았다. 안성 반제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유물은 점토띠토기와 목이 긴 항아리, 검은간토기다. 또 세형동검(한국식 동검)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청동기가 확인된다. 철기의 등장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역사시대의 시작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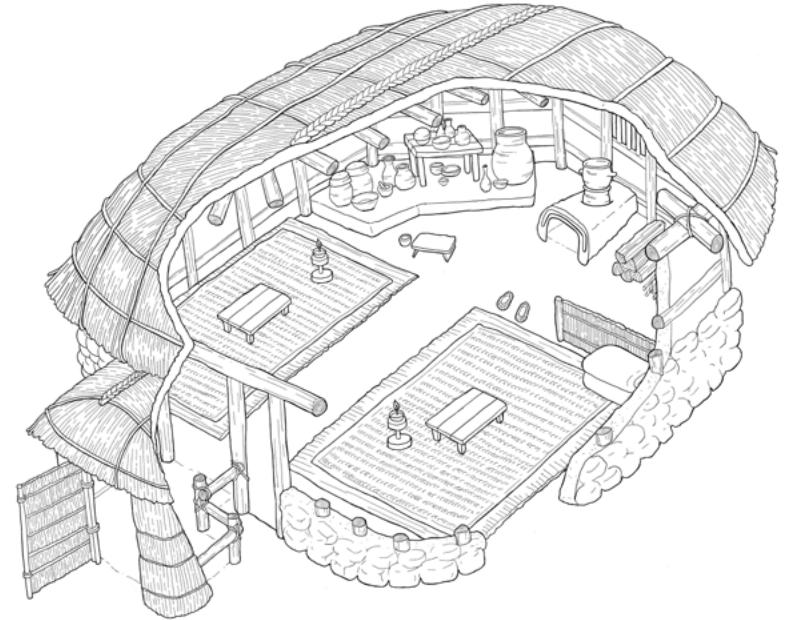


그림 16
집자리 복원도



163
세형동검
細形銅劍

초기철기시대
24.3 | 22.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제 유물이다. 전체가 가늘며 길고 양쪽에 날이 선 형태로 세형동검, 또는 한국식 동검으로 불린다. 경기 지역에서는 양평 상자포리 고인돌, 안성 만정리 목관묘 등에서 출토되었다.



165
거푸집
鎔范

초기철기시대
22.5×4.7
복제

금속을 녹여 부어 청동기·철기 등 금속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틀이다.



164
청동투갑창
銅矛

초기철기시대
10.6×3.1



166
손잡이 달린 긴 목 검은간토기
黑色磨研環狀把手附長頸壺

초기철기시대
높이 34.7 | 몸통지름 21.0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긴 목을 지닌 단지로 몸통 중간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대칭으로 한 개씩 붙어 있다. 표면이 심하게 벗겨져 있거나 일부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원래는 검은간토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은간토기는 보통 긴 목을 지닌 단지의 형태로 표면에 흑연 등의 광물질을 바르고 잘 문질러 구웠기 때문에 검은 광택이 돈다.

4. 마한을 넘어 백제를 세우다

마한馬韓과 백제伯濟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기원전 108년)한 기원전 1세기경, 한반도 중남부지역에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으로 이루어진 삼한이 있었다. 3세기 후엽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에는 마한 54개, 진한 12개, 변한 12개 소국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마한 54개국 중에는 백제국伯濟國이라는 이름도 있다.

12세기 중엽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기원전 18년경 졸본부여 卒本扶餘의 왕자 온조溫祚가 남쪽으로 내려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서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660년에 멸망하기까지 31명의 왕이 즉위하였으며, 수도는 한성漢城(서울)-웅진熊津(공주)-사비泗沘(부여)로 바뀌었다. 4세기경 근초고왕이 경기 북부와 황해도 지역에서 벌인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백제는 마한지역을 통합하고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바닷길을 통해 중국·일본 등지의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167
말 모양 허리띠고리
馬形帶鉤

삼한
9.6
평택 마무리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수입된 한나라의 거울方格規矩鏡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백제와 중국이 교류한 증거이다.



168
경질무문토기
硬質無文土器

한성백제
높이 31.1 | 입지름 15.5
포천 영송리

한성백제 초기의 토기로 두드림무늬 토기와 함께 서북한 지역 양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169
세 발 달린 그릇
三足器

한성백제
입지름 22.5 | 12.8 | 15.0
화성 소근산성, 고양 명절산성

가장 특징적인 백제 토기로 중국 고대의 세 발 달린 청동기 형태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170
넓은 입 항아리
平底廣口短經壺

한성백제
높이 11.5 | 입지름 18.0
파주 주월리

입구 부분이 짧고 바닥이 평평한 그릇이다. 비교적 정선된 점토로 만들어졌다. 표면은 회전물손질하여 매끈하게 다듬어졌다.



173
가락바퀴
紡錘車

한성백제
5.5 | 4.7
파주 육계토성

옷감을 만들기 위해 섬유에서 실을 뽑는 데 쓰인 도구이다.



171
휴대용 절구
石臼

한성백제
14.5
화성 소근산성

화강암으로 만든 돌절구이다. 바깥 면은 형태만 갖춰질 정도로 거칠게 다듬었으나 안쪽 면은 매우 곱게 다듬었다. 차츰 잎을 찧는 도구로, 백제의 귀족들이 차를 즐겼음을 보여준다.



174
원통 모양 그릇 받침
圓筒形器臺

한성백제
높이 44.6
포천 자작리



172
굽다리접시와 뚜껑
高杯

한성백제
높이 5.5 | 6.3
파주 육계토성

하늘에 소원을 비는 의식祭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토기이다.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백제의 산성에서 발견된 예가 많다.



175
큰 항아리
大壺

한성백제
높이 88.0
포천 자작리

전쟁과 교류

백제의 왕도 한성은 지금의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을 가리킨다. 왕도 주변의 주요 교통로에는 성곽을 쌓고 방어체계를 구축하였는데, 백제는 주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므로 전쟁이 잦았다. 북쪽으로는 낙랑·말갈과 고구려, 남쪽으로는 마한의 여러 나라, 동쪽으로는 신라와 자주 전쟁하였는데, 4세기 중엽에는 3만의 병력으로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지키던 고국원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강성하였다.

이 무렵 한반도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가 있었다. 중국은 4세기 초에 남쪽의 동진東晉과 북쪽의 5호胡16國國으로 나뉘었다가 5세기에 남쪽의 송宋-제齊, 북쪽의 북위北魏가 대립하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로 바뀌었다. 일본 열도는 4세기경부터 오사카大阪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야마토大和 정권이 세력을 떨쳤다. 동남아시아에는 푸난扶南, 참파林邑 등의 왕국이 있었다. 4-5세기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활발히 교류하는 가운데 대체로 고구려-신라-전진·북위 세력과 백제-가야-왜-동진·송·제 세력이 경쟁하였다.



그림 17
백제 전성기
한반도



176
창
鐵矛

한성백제
29.7
파주 육계토성

날부분의 단면이 마름모꼴인 철제 창이다. 활과 창은 백제의 병사가 사용한 기본 무기였다. 보병의 대부분이 활 쓰는 병사弓兵과 창을 쓰는 병사槍兵였다.



177
손칼
鐵刀子

한성백제
19.8

파주 육계토성



178
철제 갑옷 조각
札甲

한성백제
3.6-8.5
파주 육계토성

갑옷의 부품으로 비늘모양과 세모모양을 여러 겹 이어 만들었다. 작은 조각을 여러 개 이어 만드는 삼국시대 갑옷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



179
철로 만든 무기
鐵制武器

한성백제
파주 주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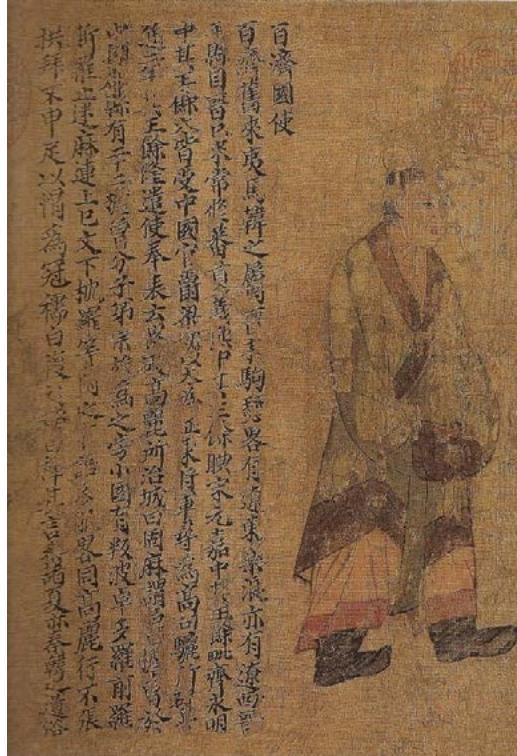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류이다. 도끼와 화살촉, 낫과 창 등이 모두 함께 출토되어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80
중국 청자 조각
靑磁壺片

중국 동진東晉
8.3
포천 자작리

동진(317-420)에서 만들어진 청자 조각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견된 것으로 4세기경 백제와 중국이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제 왕실에서 지방 세력에게 내려준 중국 도자기로 보인다.



181
백제 사신의 행차를 그린 그림
梁職貢圖

중국 양梁
난징박물관 소장

530년경 중국 양나라에 사신으로 온 외국 사신을 담은 그림으로 백제인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백제 사신은 말쑥한 차림에 머리에 관모를 쓰고 푸른색과 갈색 천으로 만든 겹옷에 붉은색과 누런색 천으로 만든 통바지를 갖춰 입었다. 백제와 중국이 서로 교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고구려의 한강 진출

고구려에서 391년에 즉위한 광개토왕은 정복 전쟁을 활발히 벌였다. 413년에 즉위한 장수왕은 427년 국내성(國內城)에서 평양(平壤)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였고, 마침내 475년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의 요충지에 크고 작은 군사시설을 만들고 군현을 설치했으며 551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후퇴할 때까지 한강 유역을 지배하였다. 경기도의 임진강 유역, 양주 분지, 아차산 일대, 성남·용인·화성 지역에 고구려의 군사시설, 주거지, 무덤 등이 남아 있다.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 중에는 보루(堡壘) 등의 군사시설이 많다. 군사시설에서는 철기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무기류가 가장 많고 마구류, 용기류, 농기구와 공구류 등도 있었다. 평소 전투가 없을 때는 군사들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고구려의 남진



182
깊은 바리
深鉢

고구려
높이 17.6 | 입지름 12.8
파주 육계토성



183
수막새
炭化粟

고구려
지름 15.0 | 15.8



184
비늘갑옷
鐵製札甲

고구려
4.6-4.8
구리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5. 통일 국가, 신라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삼국통일

경주지역에서 성장한 신라는 5세기경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각종 제도를 정비해 국력을 강화한 뒤 551년(진흥왕 12)에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였다. 553년에는 신라가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하류 지역까지 모두 차지했으며, 경기도 하남시에 새로운 행정구역이라는 뜻의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하남(한주), 안성(개산군介山郡), 이천(황무현黃武縣), 용인(거서현巨黍縣) 등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유적이 남아 있다.

7세기에 이르러 김유신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낭비성을 공격하고 경기지역 북부의 칠중하(임진강) 건너편까지 고구려 군사를 물리쳤다. 이후 신라는 임진강 유역에 성곽을 쌓아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고, 675년 당나라와의 매소성買肖城(연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삼국 통일전쟁을 끝냈다.



185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에 와서
세운 비석
北漢山眞興王巡狩碑

신라 555년
154.0×69.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복제

이 비석은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이 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비석에는 왕이 방문한 목적과 비를 만든 이유, 참여한 인물 등을 12줄 32개 글자로 기록하였다. 진흥왕은 확대된 영토를 찾아가 여러 고을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죄수를 석방하여, 직접 민심을 살피고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상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1816년 추사 김정희가 북한산 비봉에 올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
철제 갑옷
鐵製甲

삼국시대

병사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어용 무기이다. 삼국시대 갑옷은 여러 모양의 철판을 이어 만들었다.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조각을 붙이는 형태[札甲]와 긴 판을 이어 작은 못으로 연결한 형태[板甲]로 나뉜다. 이 갑옷은 후자이다. 백제와 가야의 갑옷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187
수레바퀴 부속
鐵製車

신라
지름 10.9
파주 육계토성

수레바퀴의 축을 받치는 데에 사용된 부속품이다. 수레는 신라가 수도에서 먼 경기 땅을 지배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거두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다.

신라의 지방지배, 9주5소경小京

신라왕조에 지금의 경기지역은 고구려·백제와의 오랜 격전지이자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거점이었다. 신라는 685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9주 5소경小京으로 개편하였는데, 하남·광주 지역을 포함한 경기 땅은 한주漢州로 분류되었다. 한주는 9주 가운데 관할 영역이 가장 넓었는데, 북쪽으로 예성강에서부터 남쪽으로 남한강 일대에 이르렀다.

한주는 북쪽의 발해渤海와 경계를 맞대었으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였다. 그래서 한주에는 특별히 군부대를 더 많이 두어 남천정南川停과 골내근정骨乃斤停 등 2개의 정을 설치했다. 경기지역은 당시에도 교통로가 발달하여 당성唐城(지금의 화성)이 해외교류의 거점이 되었으며, 남부지역에는 특히 불교 사찰이 많이 건립되었다. 통일을 이룬 신라는 물품 유통, 지역 교류, 불교 장려 등의 정책을 펼쳐 사회를 통합하였다.



188
연꽃무늬 수막새
蓮花寶相華文瓦當

통일신라
지름 14.4
안성 봉업사지

연꽃무늬에 보상화무늬가 가미된 수막새이다. 중앙에 연꽃을 두고 그 주변으로 다시 보상화무늬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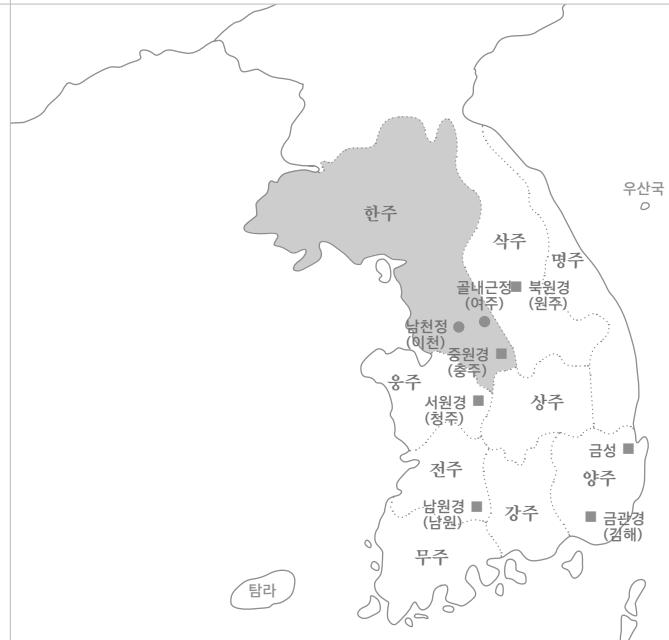


그림 19
9주 5소경

<신라의 9주 5소경>

원래이름	바뀐이름	치소 위치	군	현	정	소경
사벌주沙伐州	상주尙州	경북 상주	10	30	1	
삼량주叡良州	양주良州	경남 양산	12	34	1	금관경金官京
청주靑州	강주康州	경남 진주	11	27	1	
신주新州	한주漢州	경기 하남	27	46	2	중원경中原京
우수주牛首州	삭주朔州	강원 춘천	11	27	1	북원경北原京
하서주河西州	명주溟州	강원 강릉	9	25	1	
웅천주熊川州	웅주熊州	충남 공주	13	29	1	서원경西原京
완산주完山州	전주全州	전북 전주	10	31	1	남원경南原京
무진주武珍州	무주武州	전남 광주	14	44	1	

신라 말기의 혼란과 후삼국後三國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진골 귀족들이 왕위계승 다툼을 벌이면서 혼란을 맞았다. 특히 진성여왕(887-897) 때에는 지방 곳곳에서 호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죽주(안성)의 기훤, 북원(원주)의 양길, 완산주(전주)의 견훤 등의 세력이 강했다. 901년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주변 세력을 모두 병합한 궁예가 후고구려의 왕으로 즉위함으로써 견훤의 후백제와 함께 신라왕조에 대립하는 후삼국시대를 열었다. 918년에는 송악(개성)을 중심으로 예성강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왕건이 폭정을 일삼던 궁예를 내쫓고 즉위하여 고려高麗왕조를 세웠으며,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로써 경기 땅의 고대사회는 막을 내리고, 고려왕조의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189
뼈항아리
骨壺

통일신라
높이 26.3 | 지름 24.8

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예에 따라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일이 많았다. 화장 후 남은 뼈를 담았던 항아리로 추정된다. 뚜껑의 손잡이는 구슬 모양이며 몸체에는 구슬 장식이 달려 있다.



190
금동으로 만든 부처 金銅如來立像

통일신라
높이 8.2 | 10.1

부처의 형상을 금동으로 만든 조각이다. 부처는 가슴이 파이고 양 어깨를 감싼 큰 옷을 입고 연꽃 대좌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머리 모양은 높고 신체 윤곽은 잘 드러난다. 서로 엇갈린 채 위 아래를 향한 양 손의 모양[施無畏, 與願印]은 부처께서 여러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비를 베푸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1
글자가 써 있는 기와
華次寺銘文瓦

통일신라
34.5
안성 봉업사지

'화차사華次寺'라는 절의 이름이 적힌 수키와이다. 안쪽 면의 가운데 글을 적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변에 세밀한 격자 무늬를 새겼다.

IV 기증실



IV. 기증실

모두의 보물이 되다

IV. 기증실

모두의 보물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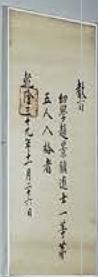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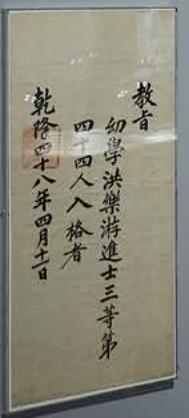
박물관은 구입,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물을 수집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방법이 기증이다. 경기도박물관은 1996년 개관한 이래 경기도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유물을 수집·보존·관리해왔다. 기증받은 유물은 과학적으로 보존처리한 뒤 안전한 수장시설에 보관하면서 전시와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과 그 가치를 공유한다.

경기도박물관의 소장품 중에서 약 50%가 기증유물이다. 그중 일부가 기증실에 전시되어 있는데, 조상 대대로 지켜온 물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애뜻한 사연이 품은 물건 등 화려한 것에서부터 가족의 이야기가 깃든 소박한 물건까지 다양하다. 모두 나만의 것에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보물’들이다.



모두의 보물이 되다
Treasure Room in Gallery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韓契의 遺物
Shin Hee's遗物 of
Philly The Shin Hee's遗物

韓契(1811-1880)는 조선 말엽의 문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문집인 『한계집』은 그의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V

실감영상실



V. 실감영상실

경기시대부 전치로의 초대

V.

실감영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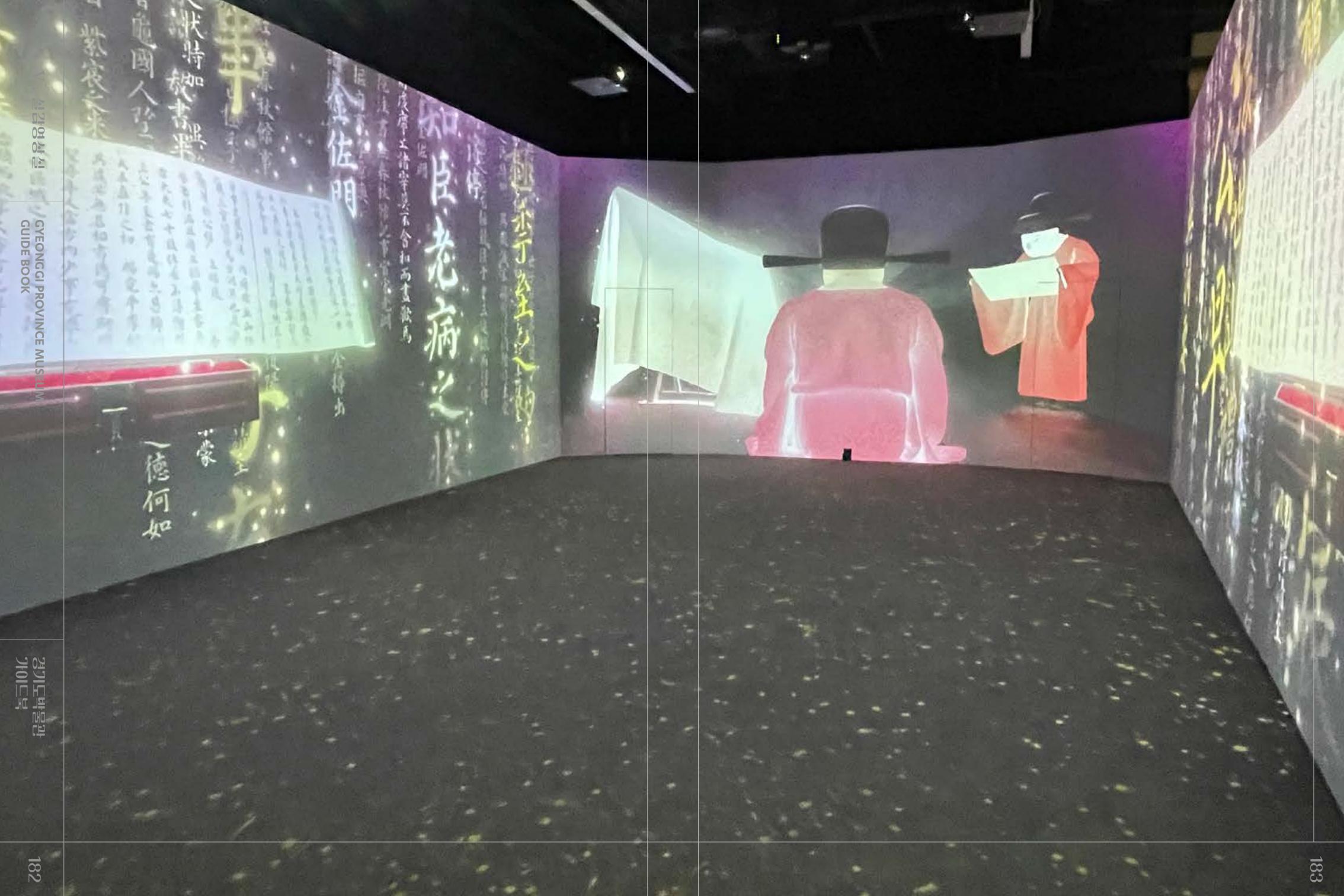
경기사대부 잔치로의 초대

경기도박물관 1층에는 실감영상실이 있다. 3D 몰입형 영상 <경기사대부 잔치로의 초대>(10분)를 상영하는 곳이다. 영상은 경기도박물관의 대표유물 중 하나인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보물)에

담긴 내용을 재해석한 것이며, 관람객은 조선시대의 사대부인 백헌 이경석이 왕이 보낸 궤장을 하사받는 장면과 잔치를 여는 화려한 모습 등을 동작 감지 인터랙션으로 즐길 수 있다.

경기사대부 잔치로의 초대







총괄 김기섭(경기도박물관장)
기획 이영은(학예운영실장) 정윤희
전시진행 주진령 김영미 박분수 이소희
 이성준 정윤희 이상아
유물 박창호 조준호 전익환
교정·교열 천혜인
윤문 박기원
디자인·제작 파인트그래픽스·교보피앤비
전시 및 자료 협조 경기도자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실학박물관 여진박물관

발행인 주흥미(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발행일 2022년 12월 9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ISBN 978-89-999-0441-7

© 경기도박물관 2022
 이 책의 저작권 및 법적 권리는 경기도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기도박물관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Gyeonggi Province Museum

경기도박물관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Gyeonggi Province Museum
 10 Sanggal-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72 Korea
 T. +82(0)31 288 5300
 F. +82(0)31 288 5339
 H. musenet.ggcf.kr

 facebook.com/gyeonggiprovincemuseum
 insagram.com/gyeonggiprovincemuseum





경기도 박물관
GYEONGGI PROVINCE MUSEUM

musetnet.ggcf.kr



ISBN 978-89-999-0441-7